



April 2025

PwC 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리포트

아·태평양 14개국 50대 상장사 공시 및 규제 현황 점검



Contents



01

Key Highlights: APAC

- (1) 4가지 핵심 요소 공시
- (2) 규제 현황
- (3) 인증 현황

03

02

Key Highlights: Korea

- (1)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 (2) 주요 시사점

07

03

글로벌 공시 기준

- (1)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및 캘리포니아 공시 기준 비교
- (2) TNFD(자연 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 (3) TISFD(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09

04

아·태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 (1)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요성 평가
- (2) 전략 및 목표 공시
- (3)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 (4) 거버넌스 공시
- (5)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 (6) 보고 범위 및 인증

14

A

Appendix

- (1) 연구 방법론

43

본 리포트는 PwC와 싱가포르 국립대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성 센터(Centre for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NUS Business School)의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원본 리포트 대비 일부 업데이트 된 정보가 있습니다.



01 Key highlights: APAC

-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 주요국에서 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채택하거나 검토 중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PwC는 ISSB의 IFRS S1 & S2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주요 트렌드를 파악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챕터 4에서 확인 가능)

(1) 4가지 핵심 요소 공시

거버넌스

- 리더십(경영진 및 이사회)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기업 지속가능성 정착 가능
- 최근 아·태 지역에서는 기업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정보 공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86%

- 지속가능성 관련 이사회의 책임, 역할, 활동 등 세부 정보를 공시한 기업 비율
- (참고) 22년 67%, 23년 84%

최근 이사회 및 경영진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시사함

전략

- 정량화되고 달성 시기가 정해진 목표 설정은 단기 및 중장기 리스크 평가와 그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

지속가능성 목표 공시 현황

53%

단기 (1년)

63%

중기 (2-5년)

74%

장기(>5년)

아·태 지역 기업은 단기 목표 보다 중장기 목표 설정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조정하는 추세

42%

- 경영진 인센티브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또는 목표 반영 여부를 공시한 기업 비율
- (참고) 22년 16%, 23년 33%

아·태 지역에서 최고 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지속가능성 성과 및 목표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지속가능성 성과-인센티브 체계’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55%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공시한 기업 비율
-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성장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회복 탄력성 평가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 핵심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공시한 많은 기업이 정성적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정량적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에 필요한 기후 영향, 탄소 배출량, 재무 지표 등의 데이터 부족이 원인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 위험 및 기회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하는 아·태지역 기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81%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한 기업 비율
- (참고) 23년 74%

- 지속가능성 리스크는 기업의 재무·운영 리스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 리스크 관리에 통합 필요

69%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가 기업 전체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지 여부를 공시한 비율

아·태 지역 기업은 여전히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 리스크 관리에 통합 노력 필요

지표 및 목표

- 아·태 지역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를 위한 지표 및 목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추세

75%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를 위한 목표를 공시한 기업 비율
- (참고) 22년 38%, 23년 70%

77%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를 위한 지표를 공시한 기업 비율

- 기후 관련 지표를 공시한 기업 중,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비율은 88%

- 기후 관련 지표를 공시한 기업 중,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비율은 63%
 - Scope 3 배출량 공시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 수준으로만 공시했으며, 9%는 세부정보 없이 총 배출량만 공시

13%

종합 수준(11~15개)
으로 Scope 3 공시한
기업 비율

33%

중간 수준 (6~10개)
으로 Scope 3
공시한 기업 비율

45%

최소 수준 (1~5개)
으로 Scope 3
공시한 기업 비율

* Scope 1: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 Scope 2: 기업이 구매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Scope 3: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 배출

* Scope 3 배출량은 15개 범위로 구성되며, 동리포트에서 정의한 Scope 3 정보 공시 수준은 최소 수준: 1~5개 공시; 중간 수준: 6~10개 공시; 종합적 수준: 11~15개



(2) 규제 현황

공시 의무화	확정	8개국: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인도, 베트남
	25년 로드맵 확정 예정	4개국: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기 발표된 GRI/TCFD 기준 로드맵을 IBB 기준으로 개정 예정 필리핀: 로드맵 초안은 발표되었으나, 확정 시기 미정
공시 의무화 시작 연도	26년(FY25)	4개국: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포르
	27년(FY26)	4개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일본(FYB26)
	28년(FY27)	2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26년 이후로 검토 중 뉴질랜드: GRI/TCFD 기준으로 24년(FY23) 시행했으나, IBB 기준으로 재검토 중 인도: 25년(FY24)부터 인도 자체 기준 적용해 단계별 의무화 시작 베트남: 상장사는 17년(FY16), 국영기업은 22년(FY21)부터 자체 기준 적용해 의무화 시작
공시 기준	확정	4개국 (IBB 기반 자체 기준): 호주, 홍콩, 일본, 중국* 3개국 (IBB 도입, 자체 기준 없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2개국 (IBB 기준 미도입, 자체 기준): 인도, 베트남
	25년 확정 예정	2개국 (IBB 기반 자체 기준): 한국, 인도네시아
	검토 중 (확정일 미정)	2개국 (IBB 도입, 자체 기준 없음): 태국, 필리핀 1개국 (IBB 기반 자체 기준 검토 중): 뉴질랜드
공시 인증 의무화	확정	3개국: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5년 확정 예정	1개국: 홍콩
	검토 중 (확정일 미정)	4개국: 일본,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공식 언급 없음 또는 폐지	6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한국, 인도(인증 폐지, 평가 도입*)
인증 기준	확정 (ISSA 5000 기반)	1개국: 호주
	25년 확정 예정 (ISSA 5000 기반)	1개국: 홍콩
	검토중 (ISSA 5000 기반, 확정일 미정)	4개국: 싱가포르(기준서 개발 중),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공식 언급 없음 또는 폐지	8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대만, 인도(인증 폐지, 평가 도입*)

* 중국은 IBB 기준을 기반으로 특수성 반영한 공시 기준(CSDS)을 확정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기초적인 틀이며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지침을 추가해 최종 기준 마련 예정

* 인도는 2024년 12월, 기존의 합리적인 인증 제도를 지속가능성 공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준하는 '평가(Assessment)'로 대체



(3) 인증 현황

- PwC의 글로벌 투자자 설문조사 2024 결과, 글로벌 투자자의 44%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담은 보고서에 근거 없는 친환경 주장인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
- 아·태 지역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을 고려하거나 의무화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국가는 재무감사와 유사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인증을 진행할 계획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2024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확정
 - 기업 유형 또는 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
 -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과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인증 절차를 포함
- 투자자, 규제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기업들은 내부 및 외부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태 지역 기업의 33%가 내부 감사 조직을 통한
내부 인증 실시



기업의 49%가 외부 인증을 진행했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60% 기업이
외부 인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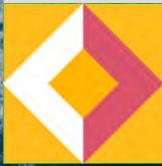
외부 인증 받은 기업의 78%는
제한적·중간 정도 신뢰 수준의 인증을 받음



* 제한적 확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인증

* 합리적 확신: 재무감사에 준한 수준의 인증으로, 제한적 인증보다 강화된 적극적 의사 표시 형태의 인증

02 Key Highlights: Korea



(1)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한국 기업은 아·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항목별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됨

1 이해관계자 피드백 반영

14페이지, 그림 1

한국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96%)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공시한 기업은 54%에 불과

2 지속가능성 교육

32페이지, 그림 17

이사회 및 경영진 대상 지속가능성 교육 공시율은 2023년 대비 증가(23년 32% → 24년 42%)했으나, 아·태 주요국(싱가포르 92%, 인도네시아 76%, 홍콩 64%)과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

3 지속가능성 성과와 경영진 보상 연계

33페이지, 그림 18

34페이지, 그림 19

지속가능성 성과와 경영진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48%로 아·태 지역 중위권 수준이며,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성과와 경영진 인센티브의 구체적 비율을 공시한 기업은 각 10%와 2%로 아·태 지역에서 하위권 수준

4 이사회 다양성 정책

35페이지, 그림 20

이사회 다양성 정책 공시율은 54%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태 주요국 대비 중하위권 수준

5 외부 인증 및 내부 인증

41페이지, 그림 26

41페이지, 그림 27

한국 기업은 외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23년 100%, '24년 98%)하는 반면, 내부 감사 조직을 통한 내부 인증 미흡(2%, 아·태 지역 평균 33%)

6 국제 인증 기준

42페이지, 표2

- 한국은 AA1000 인증 기준 적용 비율이 아·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국가(86%)
- 아·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ISAE3000*(또는 ISAE 3000을 기반으로 각국에서 제정된 인증 기준) 도입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음(아·태 지역 평균 63%, 한국 27%)

* ISAE 3000: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SA 5000의 전신



(2) 주요 시사점

아·태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분

■ 지속가능성 전략 재점검 및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전략 설정

- 지난해 10월 [PwC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46%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지속가능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응답자의 11%만이 축소할 계획으로 답변.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확신을 시사
- 기존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전략 하에 달성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공 요인과 미흡한 점을 찾는 등 지속가능성 전략 재점검을 통해 향후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전략을 새롭게 마련

■ 경영진의 지속가능성 인식 제고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수립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 필요
-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KPI)를 경영진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
- 이사회 및 경영진 대상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전문성 강화
- 이사회 다양성 확보 (형식적인 다양성 확보 즉, 숫자 맞추기 식의 Tokenism 지양)

■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

- 내부 감사(Internal Audit)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정보가 정확(Accurate)하고, 관련성(Relevant)이 있으며, 완전(Complete)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부 인증 체계 구축 검토
- 아·태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증 기준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인증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03 글로벌 공시 기준



(1)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및 캘리포니아 공시 기준 비교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공시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공시 기준(ESRS) |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공시 기준 IFRS S1, S2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단, 미국SEC는 2025년 3월 27일, 기후공시규칙 철회할 것을 발표)

구분	EU CSRD/ESRS	ISSB/IFRS S1 & S2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	캘리포니아 SB253*, SB261*
보고 주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후(S2),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S1)	기후 관련 위험	SB253: 온실가스 배출량 SB261: 기후 관련 위험
대상 기업	EU상장사, 대기업 및 Non-EU 모회사	국가별 관할 당국에서 결정	SEC 상장사	캘리포니아에서 일정 매출액 이상을 창출하는 기업
보고 연도 (시행연도)	25년(FY24)부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도입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일부 대상 기업 일정 연기)	국가별 관할 당국에서 결정	26년(FY25)부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도입	26년(FY25)부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도입
중요성	이중 중요성 적용 (재무적 중요성, 영향 중요성)	단일 중요성 적용 (재무적 중요성)	단일 중요성 적용 (재무적 중요성)	단일 중요성 적용 (재무적 중요성)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공시	공시	위험만 공시, 기회는 선택	기후 관련 위험만 공시 (SB261)
시나리오 분석	공시	공시	선택	공시 (SB261)
GHG 프로토콜	권장	권장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 적용 가능)	권장 (기업이 선택한 기준 공시 필요)	SB253: 권장 SB261: 권장 또는 국가별 인증된 기준 사용 가능
인증	초기 제한적 인증 적용 후, 향후 합리적 인증으로 고도화 방침이었으나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합리적 인증 전환 폐지 검토 중	공시 기준이므로 인증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각국의 관할당국에서 의무화 예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은 의무 상기 외 정보는 외부 감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의무

* SB25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CCDA: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 SB261: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 (CRFRA: California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



참고1 EU 옴니버스 패키지 초안에 따른 공시 일정 변경안 발표 (25년 2월 26일)

구분	현 CSRD		EU 옴니버스 패키지	
	시기	규모	시기 (‘Stop the clock’ Proposal)	규모 (‘Content’ Proposal)
Wave 1 (상장사)	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 임직원 500명 초과, • 순매출 €50M 초과, • 총자산 €25M 초과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Wave 2 (비상장)	2025년 정보 2026년 공시	• 임직원 250명 초과, • 순매출 €50M 초과, • 총자산 €25M 초과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7년 정보 2028년 공시	• 임직원 1000명 초과 & • 순매출 €50M 초과 또는 총자산 €25M 초과
Wave 3 (상장 중소 및 소규모금융)	2026년 정보 2027년 공시	• 임직원 10명 이상 250명 이하 • 순매출 €50M 초과 • 총자산 €25M 초과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Wave 4 (Non-EU 모기업)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 CSRD 적용대상 EU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순매출 €40M 초과) 보유 & EU 역내 순매출 €150M 초과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 회계 지침 상 대규모* EU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순매출 €50M 초과) 보유 & EU 역내 순매출 €450M 초과

* 회계 지침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Article 1(4))상 정의된 대규모 기업 정의: 다음 셋 중 둘 이상(임직원 250명, 순매출 €50M, 자산 €25M 초과)

참고2 트럼프 2기 집권 후, 연방 차원(SEC)의 공시 규칙이 철회 되었으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개별 주(州)정부 단위의 기후 공시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모니터링 필요

구분	워싱턴	뉴욕	일리노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 공시법안(SB 6092) 입법 위원회 통과 (24년 2월) ✓ 최종 시행 승인 대기 ✓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Scope 1,2,3 배출량 외부 인증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3456) 재도입 (25년 1월) ✓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Scope 1,2,3 배출량 외부 인증 요구 • 재무 리스크 공시법(S3697) 발의 (25년 1월) ✓ 연간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공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리노이주 하원, 기후 기업 책임법(HB4268) 발의 (24년 1월) ✓ 현재 계류 중 ✓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Scope 1,2,3 배출량 외부 인증 요구



(2) TNFD(자연 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NFD 특징

- TNFD*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네가지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자연 자본 손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데 집중
- TCFD를 바탕으로 공시 체계를 도입한 기업은 TNFD를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TNFD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크게 3가지 부문에서 차이를 보임
- TCFD와 비교 시, 특정 지역의 생태계나 자연 자본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① 원주민, 지역사회,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위한 정책과 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에 대해 설명
 - ②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자산 및 사업 활동의 위치를 공시하고, (가능한 경우) 업스트림/다운스트림에서 자연 자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순위 공시
 - ③ 직접 운영 뿐만 아니라, 업스트림/다운스트림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에서 자연 자본에 대한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설명

ESRS와 TNFD 간 상호운용성 검토

- 2023년 12월, CSRD에 따라 ESRS를 개발한 유럽재무 보고자문그룹(EFRAG)은 TNFD와 MOU 체결
- TNFD와 ESRS 공시 기준 간 상호운용성 높임
- TNFD의 14가지 공시 권장 사항을 ESRS에 포함
 - ① ESRS E1 기후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산불, 가뭄, 홍수 등)는 TNFD가 강조하는 자연 관련 리스크 평가와 연결
 - ② ESRS E2 오염: TNFD는 오염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는 리스크를 강조하며, ESRS E2는 이를 정량적 데이터로 보고하도록 요구
 - ③ ESRS E3 수자원 및 해양 자원: TNFD는 지역적 맥락에서 기업의 물 의존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ESRS E3는 관련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보고 요구
 - ④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TNFD 지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
 - ⑤ ESRS E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TNFD는 순환 경제 전환이 자연 자본 의존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있다고 강조하며, ESRS E5는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

ISSB의 후속 주제

- ISSB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공시 기준의 연구 과제를 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② 인적 자본을 선정
- ISSB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관련 공시 개발 시 TNFD 권고안을 활용할 것으로 발표



*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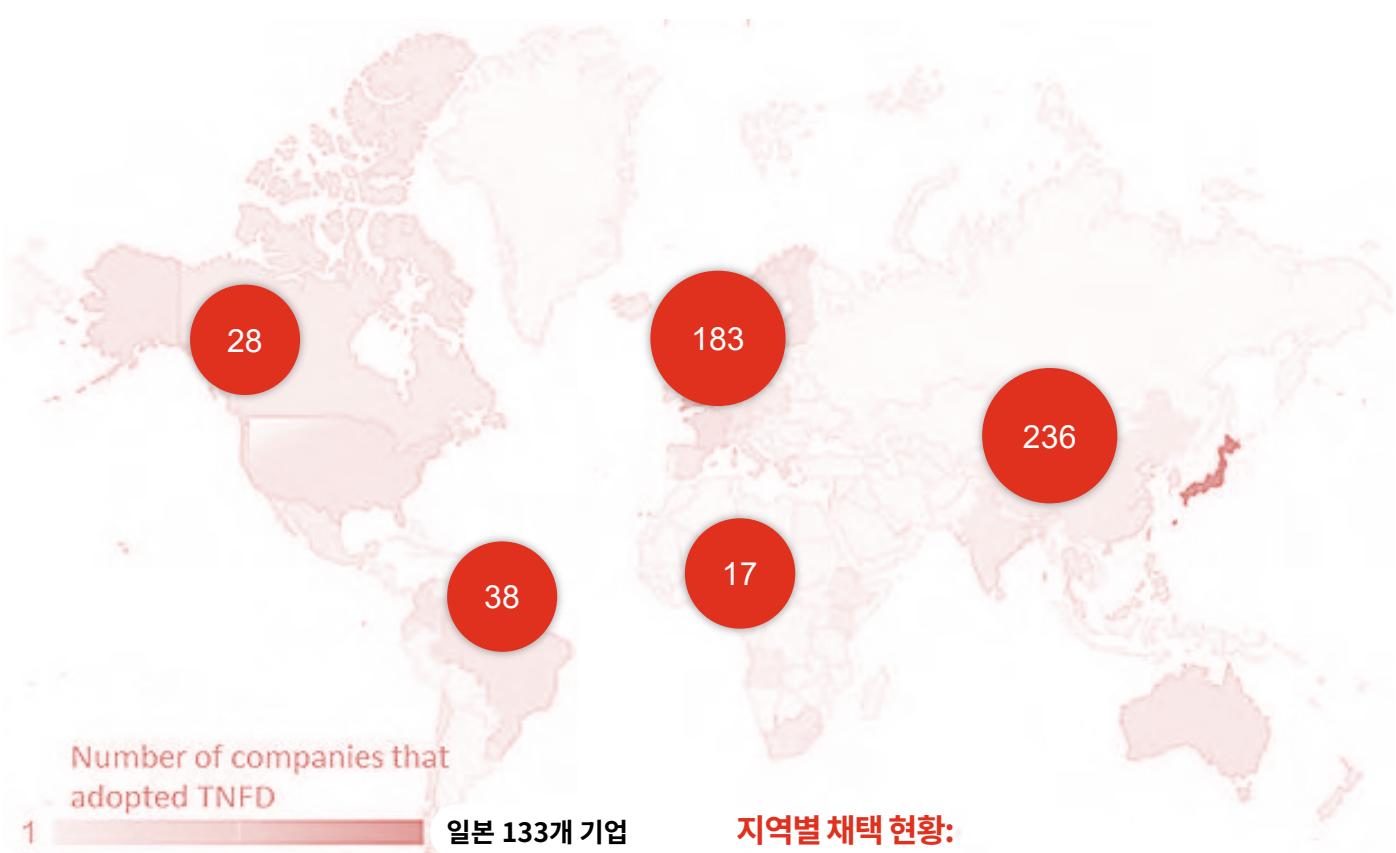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글로벌 TNFD 채택 현황

- 현재 전 세계 502개 기업 및 금융기관이 TNFD 채택(24년 10월 기준)
 - TNFD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약 6조 5천억 달러(약 8,900조 원) 규모
 - 금융기관은 129개로 이중 25%가 국제결제은행(BIS)가 정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이며, 이들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은 17조 7천억 달러(약 2경 4,200조 원) 규모
 - 아·태 지역의 기업이 47.01%로 가장 많이 채택
- 일본은 총 133개 기업이 TNFD 채택을 발표했으며, TNFD 채택 선도 국가로 평가

TNFD adoption globally



지역별 채택 현황:

- 아·태: 47.01% (일본: 27.2%)
- 유럽: 36.45%
- 남미/카리브해: 7.57%
- 북미: 5.58%
- 아프리카/중동: 3.39%

Source: TNFD, Over 500 organisations and \$17.7 trillion AUM now committed to TNFD-aligned risk management and corporate reporting, October 2024



(3) TISFD(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 2024년 9월, TISFD*(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출범
- 불평등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영향, 의존성,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 관리, 공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공시 정보 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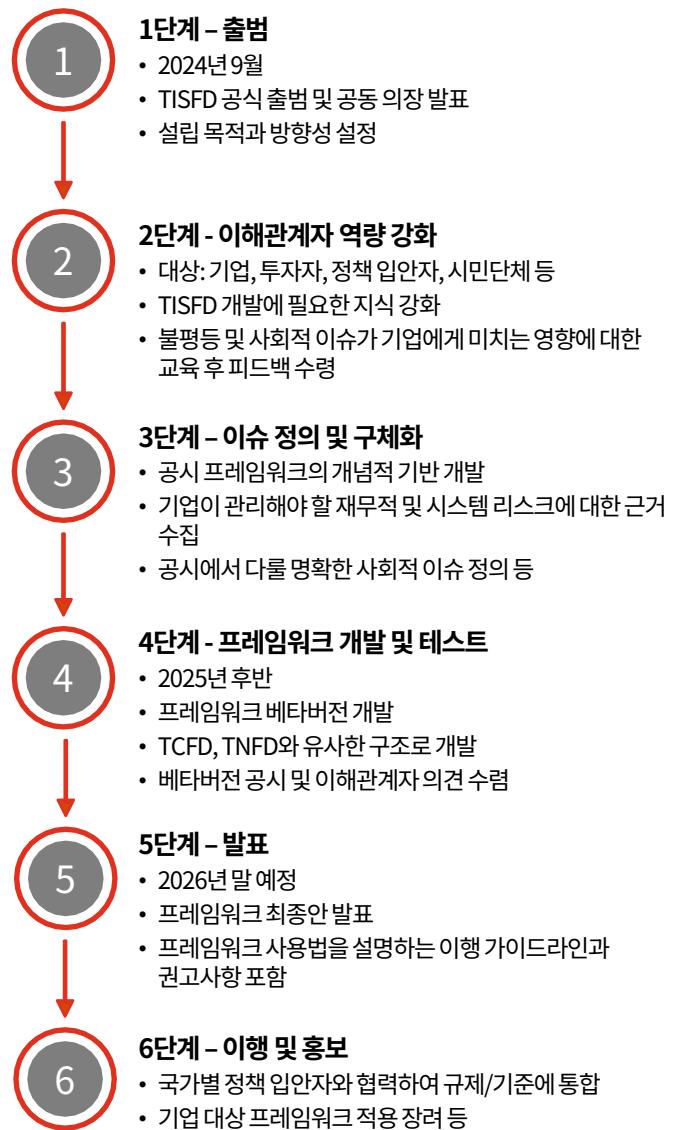
- 다수의 기업 및 기관에 중요한 정보인가?
 - 예: 임금 격차, 임금 문제, 노동 조건 등 여러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관련된 영향, 의존성, 리스크 및 기회(IDRO*)가 중요한가?
 - 예: 영향(인권침해), 의존성(노동력), 리스크(규제 위반, 평판 손상), 기회(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등)
- 기업 차원에서 IDRO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 예: 노동 관행 개선으로 직원 유지율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 또는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인가?
 - 예: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가?

중요성 접근 방식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접근 방식을 조합해 공시 기준 개발 예정
 -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 사회적 이슈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이중 중요성 접근 방식에 시간적 관점이 포함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영향만 보지 않고 리스크와 기회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공시

향후 계획

- TISFD는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실행을 위한 6단계 프로세스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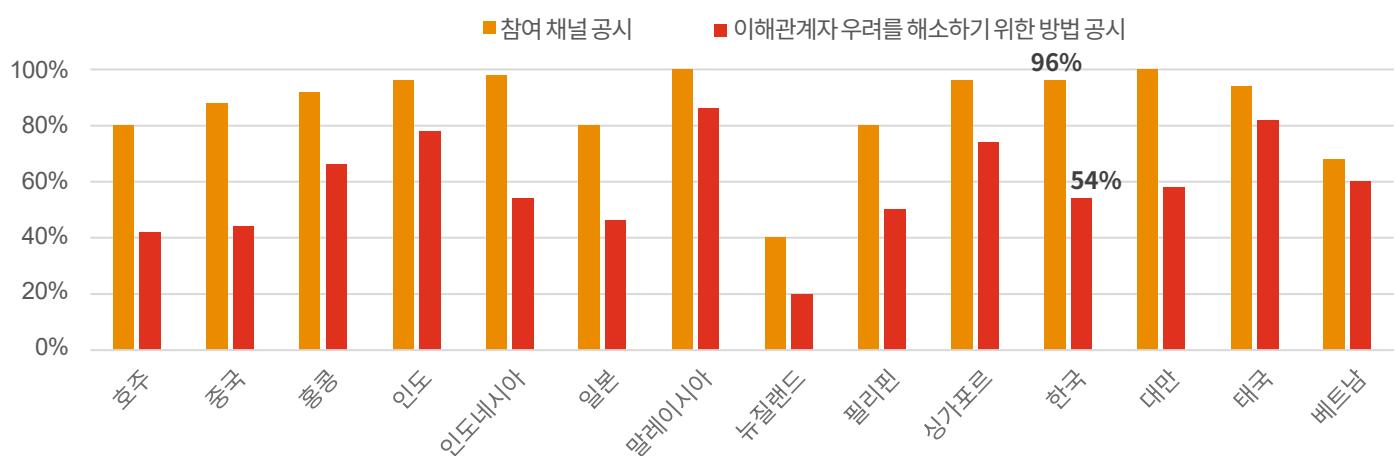


* IDRO: Impact, Dependency, Risk, Opportunity

* TISFD: Taskforce on Inequality and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요성 평가

그림 1: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및 이해관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공시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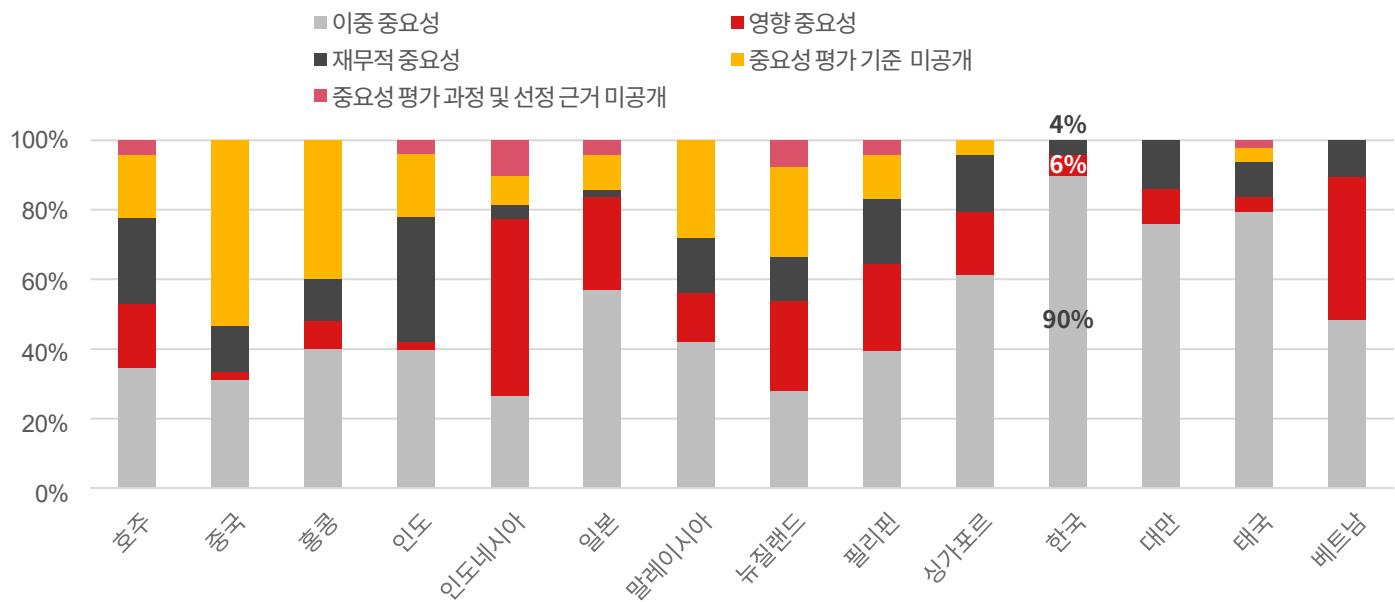
- 이해관계자 참여는 조직이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자, 이해관계자 관계 구축에 필수 요소
- 이를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받고, 이해하며, 요구 사항을 우선 순위화 할 수 있음

현황

- 아·태 지역 기업 중, 86%의 기업이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공시(23년 83%에서 증가)
- 아·태 지역 기업 중, 기업의 58%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공시(23년 54%에서 증가)
 - 특히, 말레이시아(86%), 태국(82%), 인도(7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2: 중요성 평가 - 평가 방법 유형



참고: 보고된 정보는 공시된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특정 기준 및 프레임워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에 대한 이 분석에서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밝힌 지속가능성 요소를 참고해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많이 선택된 요소라면, 기후 변화 대응을 기반으로 국가별 평가 방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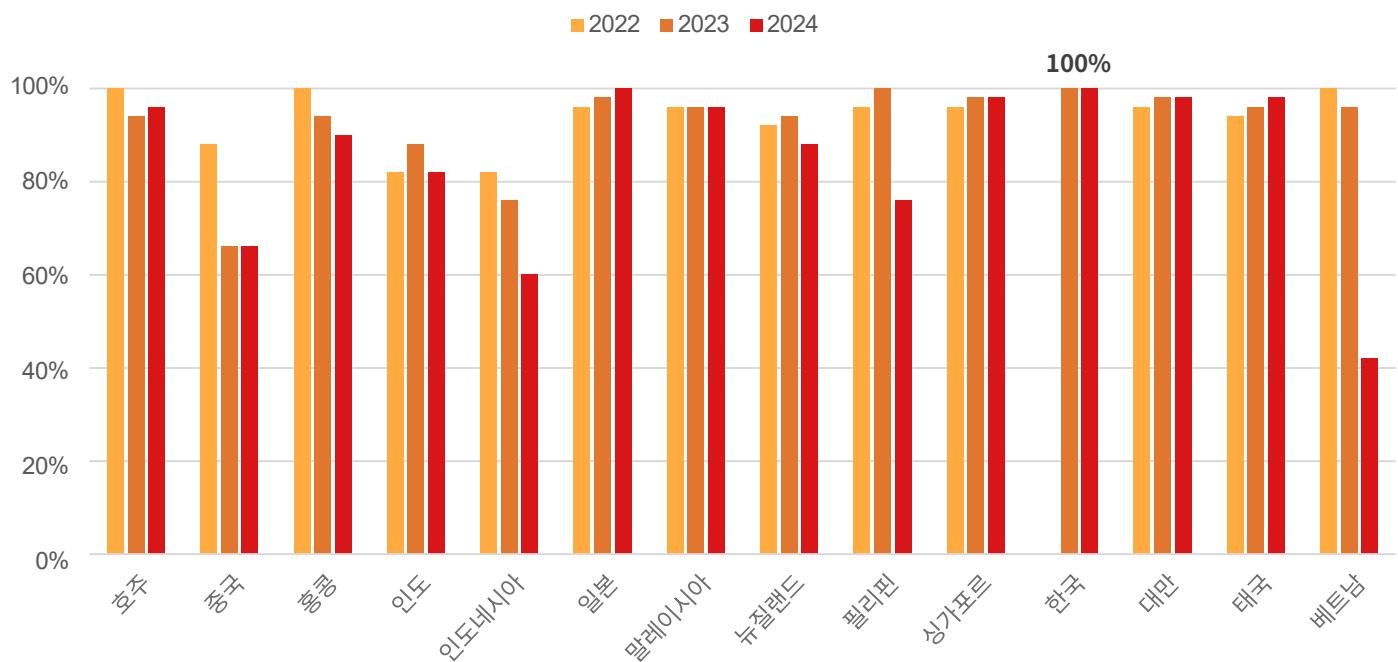
- 중요성 평가는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
- 영향 중요성이란 조직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의미
- 재무적 중요성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조직의 재무 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의미
- 이중 중요성은 영향 중요성과 재무 중요성을 모두 결합한 개념
- 지속가능성 이슈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내부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예상되는 위험과 기회 관리 가능

현황

- 아·태 지역 기업 중, 97%의 기업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 선정 과정 또는 근거 명시
- 평가 방법을 명시한 기업 중 51%는 이중 중요성 접근법 채택, 그 다음으로 영향 중요성 접근법(18%) 채택
- 한국 기업은 대부분 이중 중요성 접근법 채택(90%), 태국(80%), 대만(76%)이 그 뒤를 이음
- 인도네시아 기업 대부분이 영향 중요성 접근법 채택(51%).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 10%는 선정 과정이나 근거를 공시하지 않음
- 평가 방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 기후 변화, 에너지, 산업 보건 및 안전, 지역 사회 등

(2) 전략 및 목표 공시

그림 3: 지속가능성 목표 공시



참고: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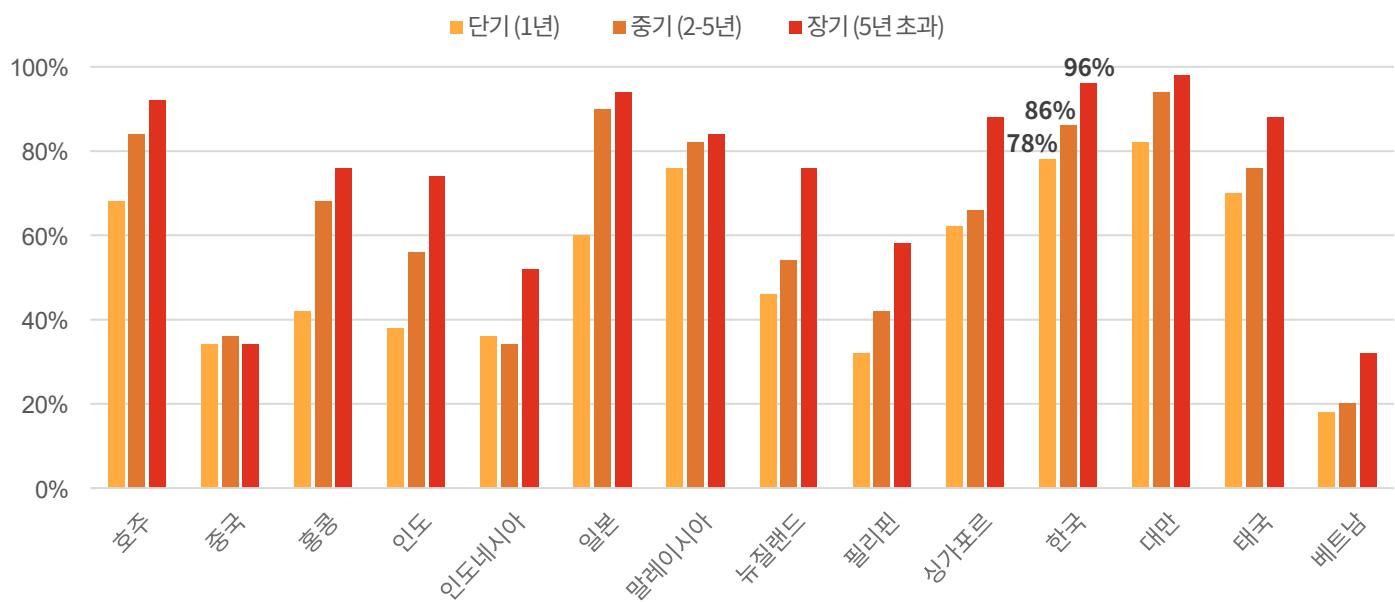
해당 주제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 목표 공시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기업의 의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이자, 기업의 목표 달성을 현황 및 성과 추적, 규제 준수 등을 위해 필요

현황

- 아·태 지역 기업의 85%가 목표 달성을 명시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공시 (23년 92%에 비해 감소)
- 특히 한국은 2년 연속 100% 공시율을 달성
- 조사 대상 기업의 6%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목표 공시

그림 4: (단기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 목표 공시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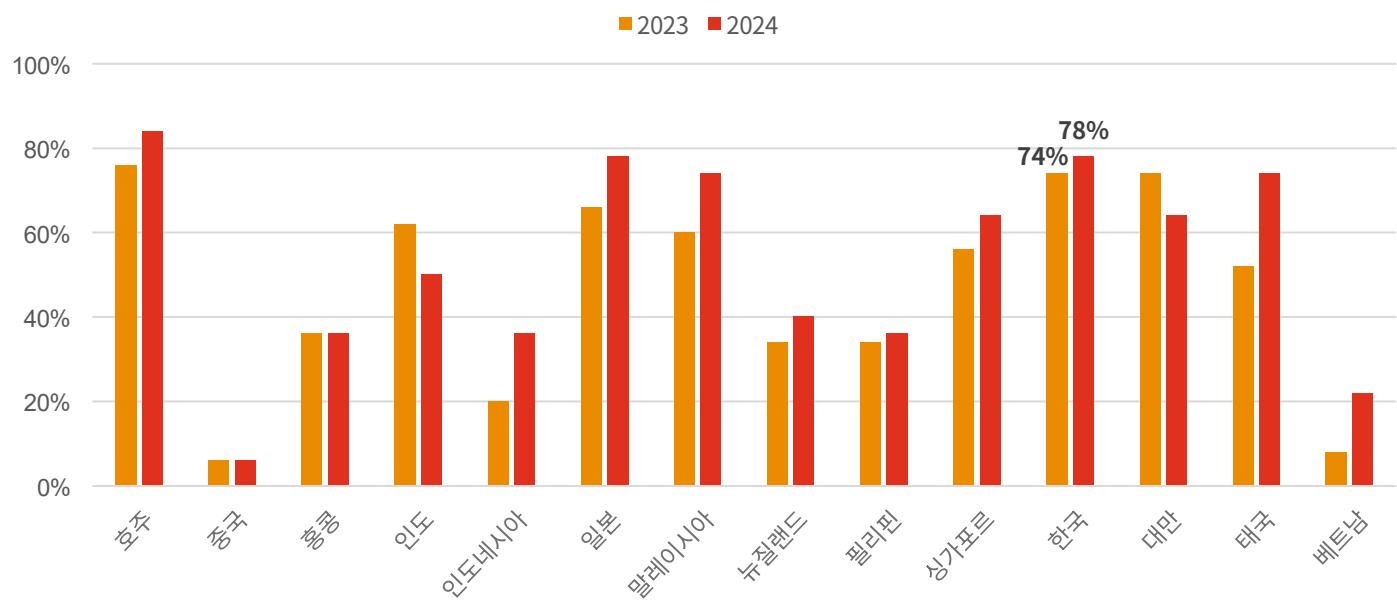
- 정량화되고 달성 시기가 정해진 목표 설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며,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 및 중기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도 유연한 대응력 확보 가능
-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기 및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

현황

- 아·태 지역 기업의 53%가 단기 목표 공시를 했고, 중기 및 장기 목표 공시를 한 기업은 각각 63%와 74%로 집계 (중·장기 목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 기업의 주요 중·장기 목표: '넷제로',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채택' 등



그림 5: 넷제로 목표 공시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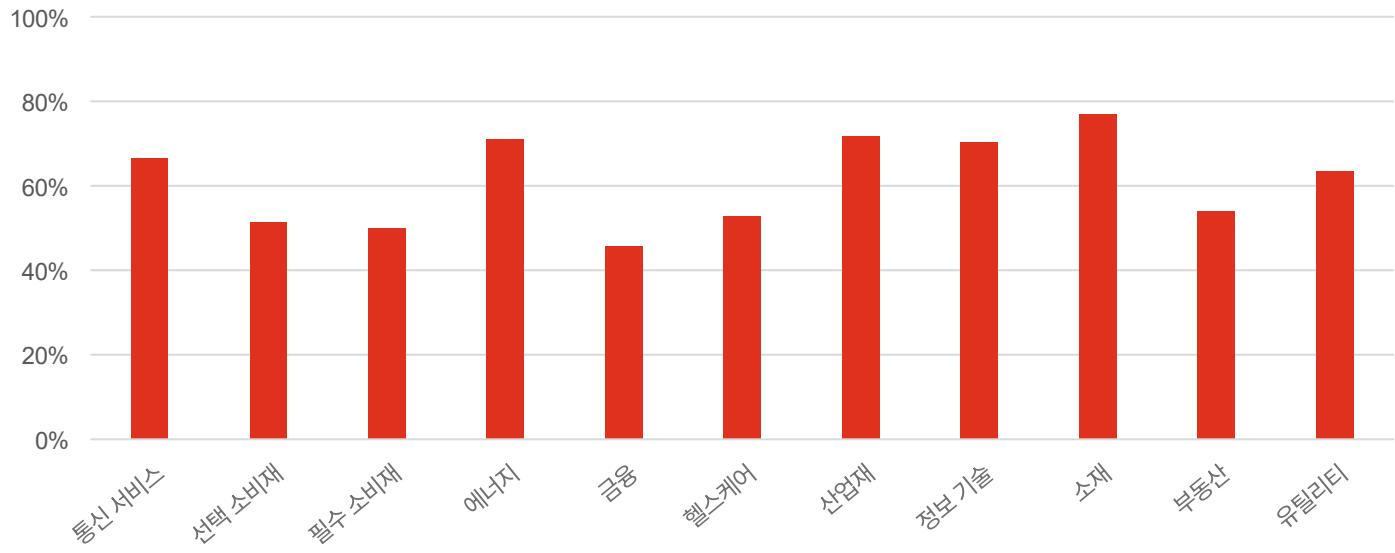
- 넷제로 목표 공시는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 규제 준수, 선도적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구축 등의 이점을 취할 수 있음

현황

- 아·태 지역 기업 53%가 넷제로 목표 공시
- 중국, 홍콩, 인도,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에서 넷제로 목표를 공시하는 기업이 증가



그림 6: (산업별) 넷제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점 공시 현황



참고: 2024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산업에서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명확히 정해 공개한 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산업별 기업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 42개, 선택 소비재: 68개, 필수 소비재: 72개, 에너지: 31개, 금융: 129개, 헬스케어: 36개, 산업재: 106개, 정보 기술: 64개, 소재: 48개, 부동산: 63개, 유트리티: 41개.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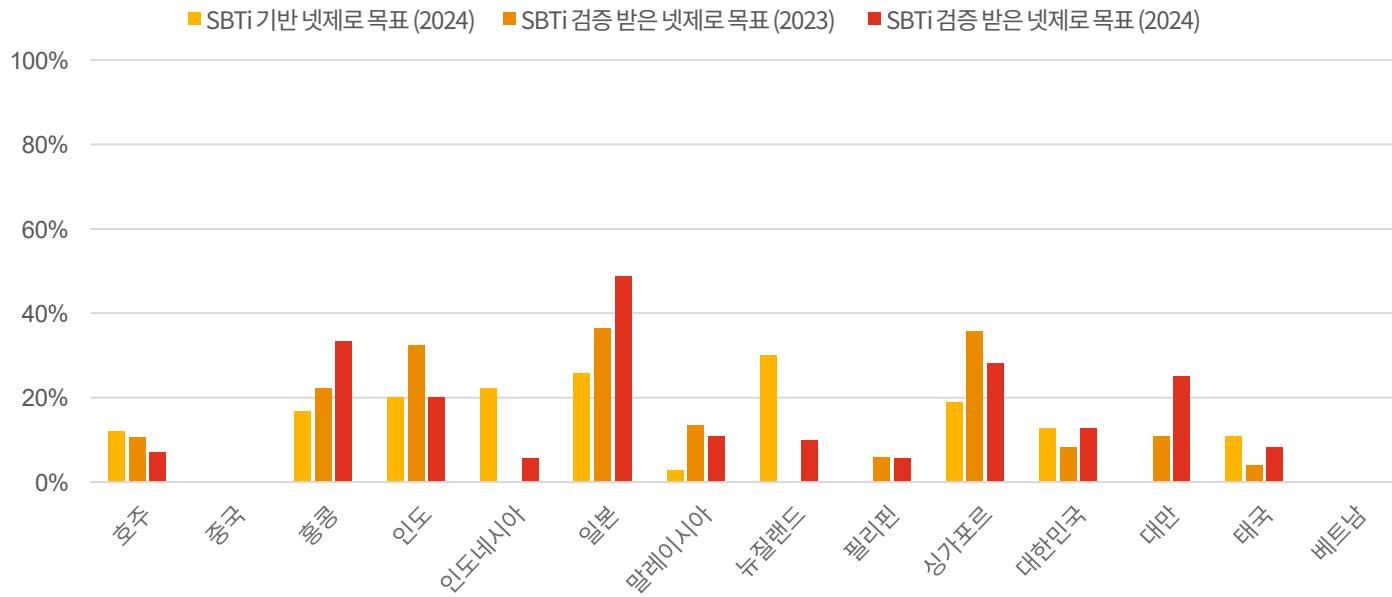
- 넷제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분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어떤 분야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 산업별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됨

현황

-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 목표 공시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1위 소재(77%), 2위 산업재(72%), 3위 에너지(71%), 4위 정보 기술(70%), 5위 통신 서비스(67%) 순으로 나타남
- 금융 부문의 공시율은 46%로 가장 낮은 수준
- 금융기관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Scope 1, 2)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출 및 투자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배출량(스코프 3)이 대부분을 차지
- 피투자처의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금융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 설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 산업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넷제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



그림 7: SBTi 기반 넷제로 목표 공시 및 SBTi 검증 받은 기업



참고: 2023년 데이터는 SBTi의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기업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며, 2024년 데이터는 SBTi 기반 넷제로 목표와 검증 받은 기업의 현황까지 보여줍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넷제로 목표를 공시한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넷제로 목표가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님
- SBTi 기반 넷제로 목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며, 최신 기후 과학 접근법을 반영해 새로운 양상의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마련 가능
- 또한, SBTi 검증을 받은 넷제로 목표는 구조화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관된 탈탄소화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검증을 받은 목표가 파리협정의 지구 온도 상승 1.5°C 제한 목표와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현황

- SBTi 기반 넷제로 목표 설정 공개 비율 상위 3개국: 1위 뉴질랜드(30%), 2위 일본(26%), 3위 인도네시아(22%)
-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기업 중 37%가 자사의 목표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SBTi의 검증을 받은 기업은 18%에 불과
- 23년에서 24년 기간 동안 SBTi가 검증한 넷제로 목표를 가진 기업의 비율이 증가
 - 특히 대만과 태국은 SBTi 검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
- 넷제로 목표를 수립한 일본 기업 중 SBTi 검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23년 36%, 24년 4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
- 정보 미공개 현황
 - 중국, 베트남: SBTi 기준에 따른 넷제로 목표와 SBTi의 검증 여부 미공개
 -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23년 SBTi 검증 여부 미공개
 - 필리핀, 대만: 24년 SBTi 기반 넷제로 목표 미공개



(3)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 아·태 지역은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함

- 지리적 특성: 아·태 지역은 섬나라가 많고 해안선이 길어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에 취약
- 잦은 기상 이변: 홍수, 태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강화되고 있음
- 빠른 도시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에너지와 물 사용량이 급증해 기후 변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음

■ 기후 변화는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침*

-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 전환 위험(Transition Risk):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규제, 기술 변화, 시장 변화 등으로 기업 운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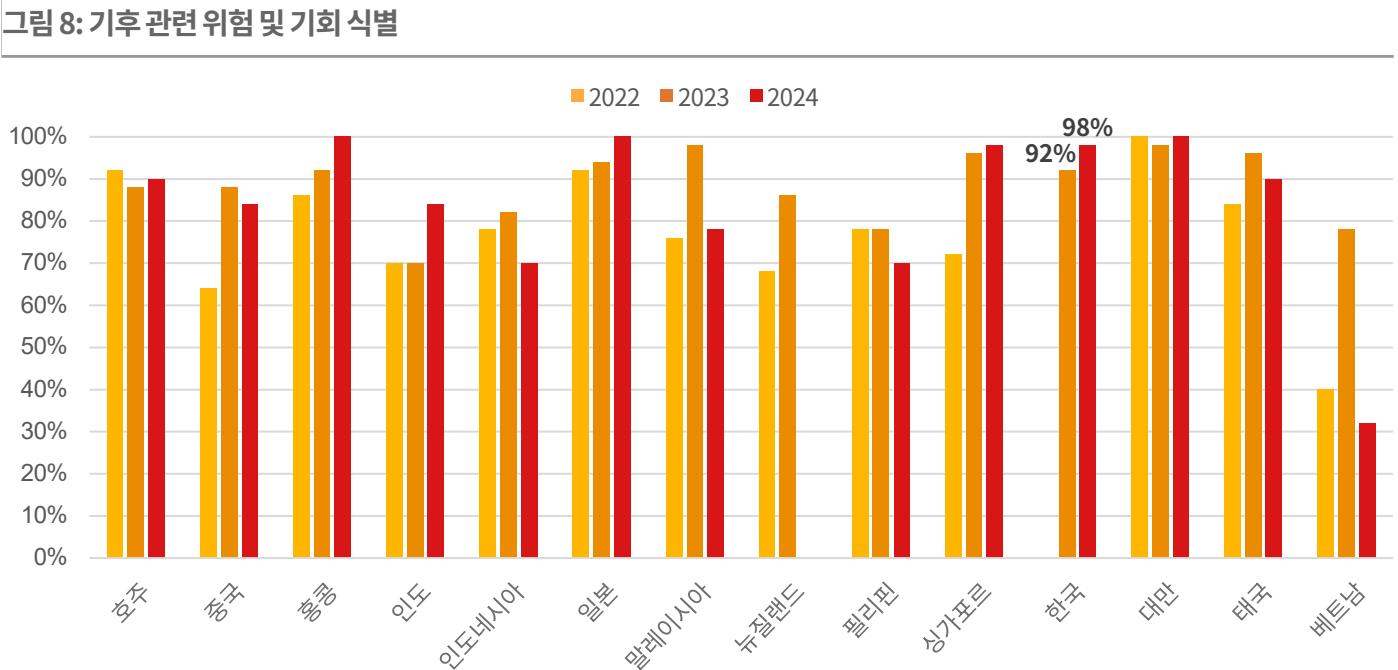
■ 기후 위험 및 기회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기후 위험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위험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서 분석 필요
-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가능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저탄소 에너지원 도입 등)
-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경제에 발맞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은 미래의 잠재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높음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p.5-11.

* Huntriss, N. 'Risk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Identifying risks and opportunities.' IRIS Intelligence, November 22, 2021.



참고: 뉴질랜드의 2024년 데이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PwC 넷제로 경제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로 제한 하려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매년 20.4%의 탄소 감축 필요하며, 이는 2023년 감축량의 20배 수준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은 기업에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
 - 기상이변과 같은 기후 관련 위험은 자산 손상, 공급망 중단, 운영 비용 증가 등의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기후 관련 기회 파악은 비용 절감, 새로운 수익원 창출, 재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은 기후 관련 규제와 공시 기준 (예: IFRS S2)을 도입하기 시작함

현황

- 아·태 지역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한 기업의 비율은 2023년 88%에서 2024년 84%로 감소했으나, 2022년 71%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
 - 2024년 기준 홍콩, 일본, 대만 기업들은 100% 공시율 달성





표 1: 기후 관련 위험의 유형

국가/위험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사이클론/허리케인/폭풍우	염려하는 한파	수해	지속적인 고온/가뭄/화재/폭염	해수面上	강수 폭탄의 변화	법률 및 규제	기술	시장	부동산	
호주	60%	52%	62%	58%	34%	38%	76%	58%	70%	64%	
중국	32%	14%	32%	32%	18%	16%	56%	46%	54%	46%	
홍콩	82%	38%	80%	60%	38%	48%	94%	76%	86%	74%	
인도	50%	34%	54%	46%	34%	42%	60%	30%	40%	46%	
인도네시아	24%	14%	48%	34%	20%	26%	38%	26%	32%	24%	
일본	90%	46%	90%	78%	54%	52%	96%	52%	82%	68%	
말레이시아	24%	26%	52%	44%	34%	22%	66%	56%	56%	54%	
필리핀	46%	8%	50%	36%	18%	10%	32%	22%	22%	18%	
싱가포르	52%	56%	70%	72%	42%	44%	88%	40%	68%	52%	
한국	84%	54%	64%	72%	56%	36%	94%	76%	86%	74%	
대만	76%	8%	72%	74%	36%	36%	94%	62%	82%	52%	
태국	42%	22%	70%	64%	32%	18%	74%	48%	58%	48%	
베트남	10%	2%	12%	8%	2%	4%	10%	4%	2%	4%	

0-25% 기업

25-50% 기업

50-75% 기업

75% 이상의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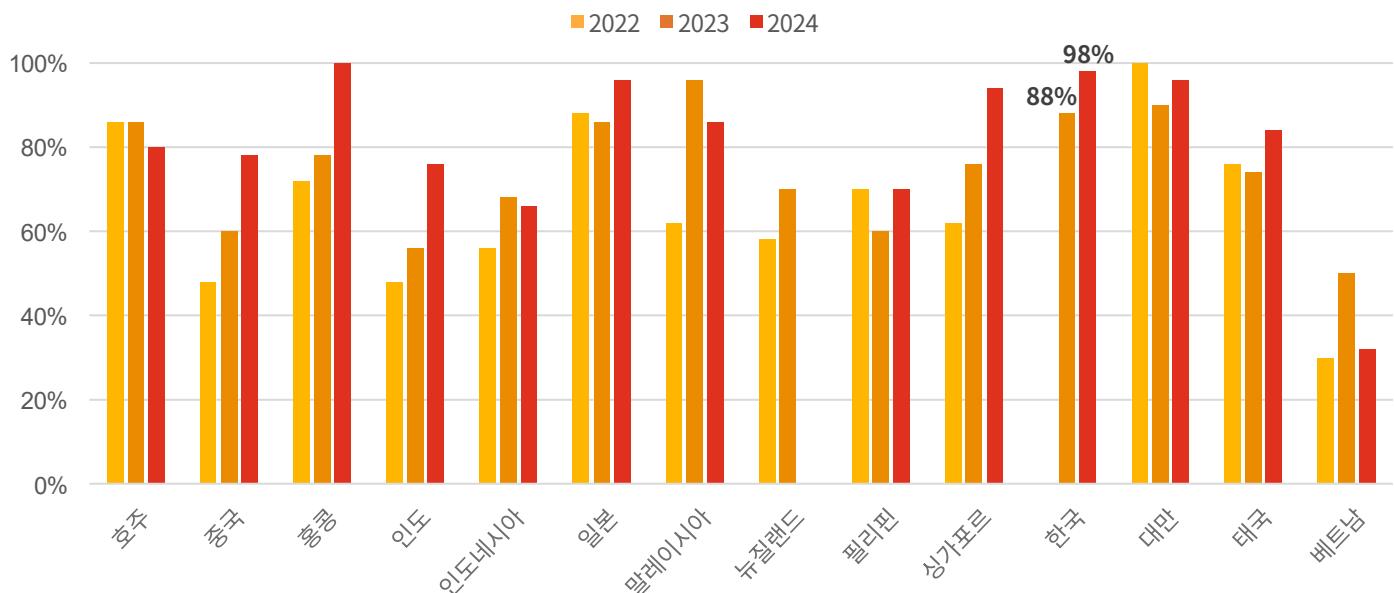
- 아·태 지역 기업의 72%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물리적 리스크를, 70%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환 리스크를 언급
- 아·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물리적 위험: 1위 ‘홍수(58%)’, 2위 ‘지속적인 고온 또는 가뭄(52%)’, 3위 ‘사이클론, 허리케인, 폭풍우 (52%)’
 - 이러한 결과는 IPCC 실무 그룹*의 6차 평가 보고서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

- 아·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전환 위험: 1위 ‘정책 및 법률(68%)’, 2위 ‘시장 (57%)’
 - 기업들이 인식하는 전환 위험의 유형은 국가별 규제 환경과 연관성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지역 기업은 ‘정책 및 법률’을 중요한 전환 위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규제가 미흡한 지역의 기업은 시장 리스크(예: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호 변화 등)를 ‘정책 및 법률’과 비슷하거나 더 중요한 수준으로 고려

*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Working Group II –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Fact sheet – Asia.’ October 2022



그림 9: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공식



참고: 뉴질랜드의 2024년 데이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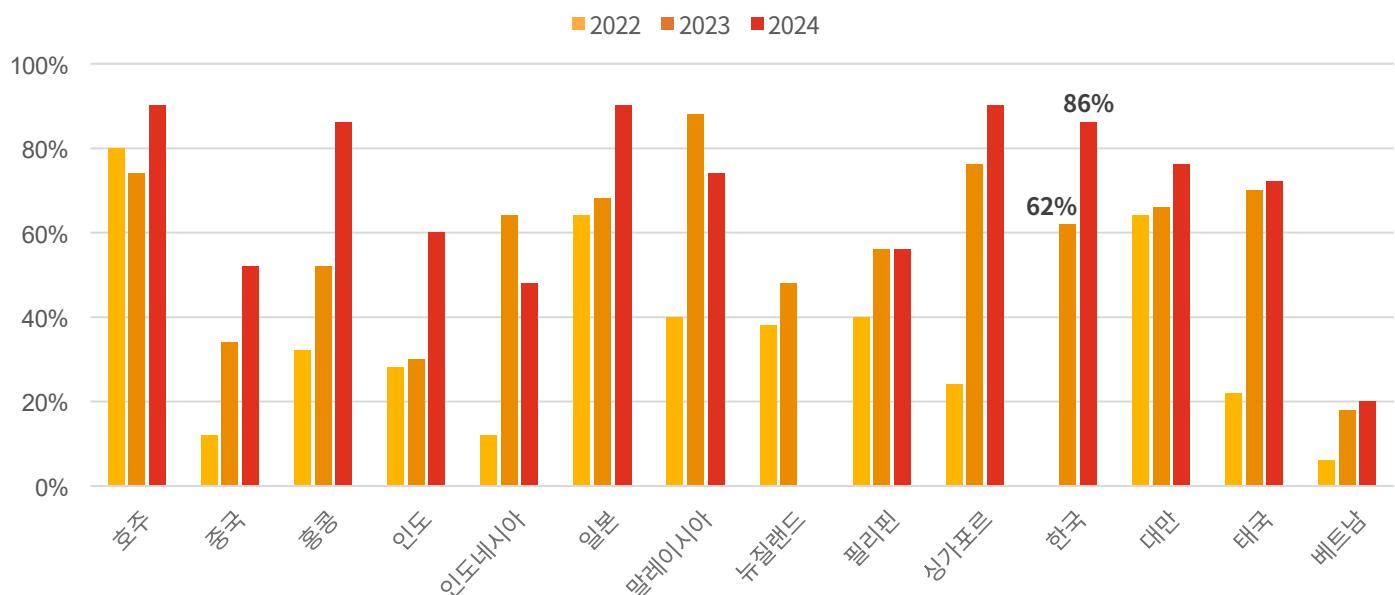
- 해당 주제에 대한 공시는 규제 준수를 넘어 자본 조달 관점에서도 중요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공시는 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회복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용이한 자본 조달 및 유리한 투자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의 기후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직원, 공급업체,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음

현황

- 조사 대상 기업의 81%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했으며, 이는 23년의 74%보다 증가한 수치
 - 13개 국가 중 9개 국가에서 23년과 24년 기간 동안 공시 비율 증가
 - 호주, 인도네시아는 소폭 감소, 베트남은 가파른 감소세 보임
 - 홍콩은 23년 78%에서 24년 100%로 가장 크게 증가 (조사 대상 기업 모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한 유일한 지역)
 - 홍콩에 이어 24년 공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한국(98%), 일본(96%), 대만(96%), 싱가포르(94%)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전사 리스크 관리에 기후 관련 위험의 통합 여부 공시



참고: 뉴질랜드의 2024년 데이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을 전체 리스크 관리 체계에 어떻게 통합하는지 공시해야 함
 - 이해관계자: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 구매, 지지 등의 의사 결정 지원
 - 투자자 및 규제 기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투자, 규제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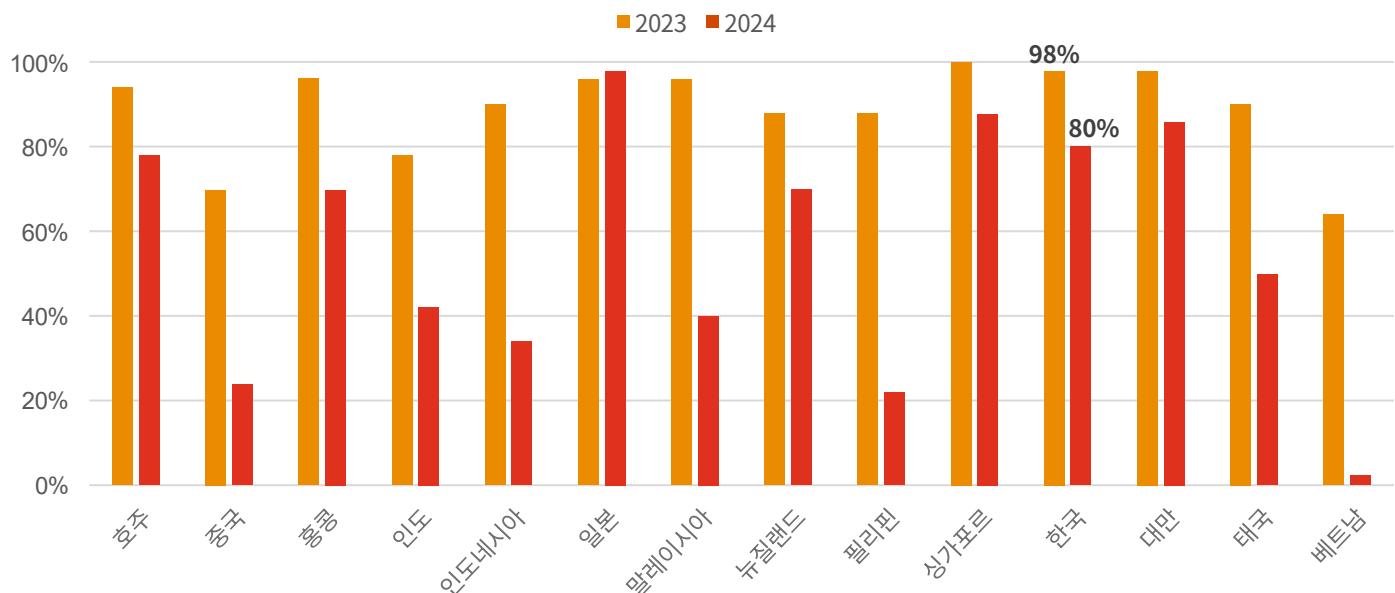
현황

- 조사 대상 기업의 81%는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했으나, 이를 기업 전체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통합했는지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69%에 불과
- 22년 한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33%였던 공시율이 23년 14개 지역에서 58%, 24년 13개 지역에서 69%로 꾸준히 증가
-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23년 64%→24년 48%)와 말레이시아(23년 88%→24년 74%)는 공시율이 감소
- 24년 기후 관련 위험을 전사 리스크 관리에 통합하는 방식을 공시한 기업 비율이 높은 5개 지역: 공동 1위 호주(90%), 일본(90%), 싱가포르(90%), 공동 4위 홍콩(86%), 한국(86%)
 - 특히 홍콩은 23년 52%→24년 86%로 가장 폭넓게 증가





그림 11: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공시



참고: 뉴질랜드의 2024년 데이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미래의 잠재적 기후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 필요
-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영향을 수치화하여 대응책 마련에 도움
- 시나리오 분석은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구분
 -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활용하면 심층적이고 정교한 인사이트 도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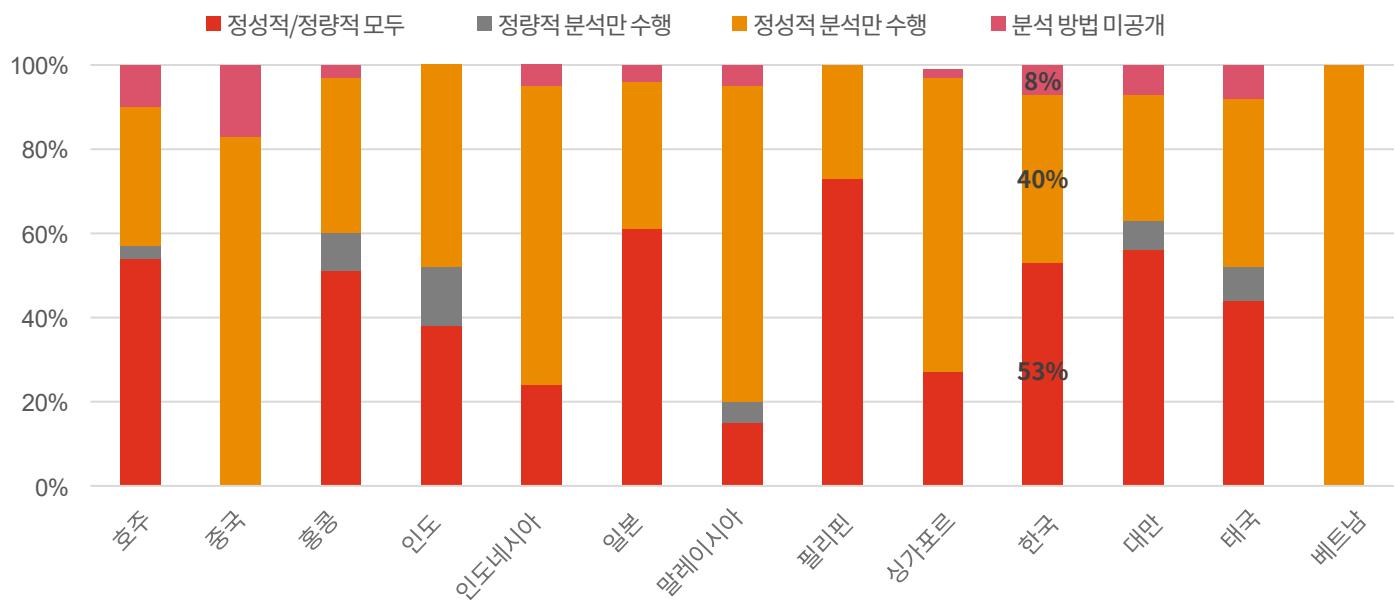
현황

- 본 보고서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아·태 지역에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55%)이 24년에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공시함
- 기업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식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데이터와 정량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분석 필요





그림 12: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



참고:

- 1) 분석 방법 미공개는 기업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고 공시했으나, 정성적/정량적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기업을 의미
- 2) 특정 유형의 시나리오 분석(예: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기업 수를 파악할 때, 기후 시나리오 분석 자체를 공시한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특정 유형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고 공시한 모든 기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3) 뉴질랜드의 2024년 데이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정량적 기후 시나리오 분석의 중요성 증대:

- 과거에는 기후변화 영향을 설명하는 정성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는 기후변화 위험이 초래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함
- 투자자와 규제 기관 역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할 때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추세

■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의 어려움 및 해결 방안:

- 기후 변화 영향/온실가스 배출량/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 어려움, 기후 과학모델링 지식 부족, 기후 관련 공시 기준 및 규제의 불확실성 등
- 기후 과학자 및 전문가 협력 증대, 고품질 시나리오 분석 도구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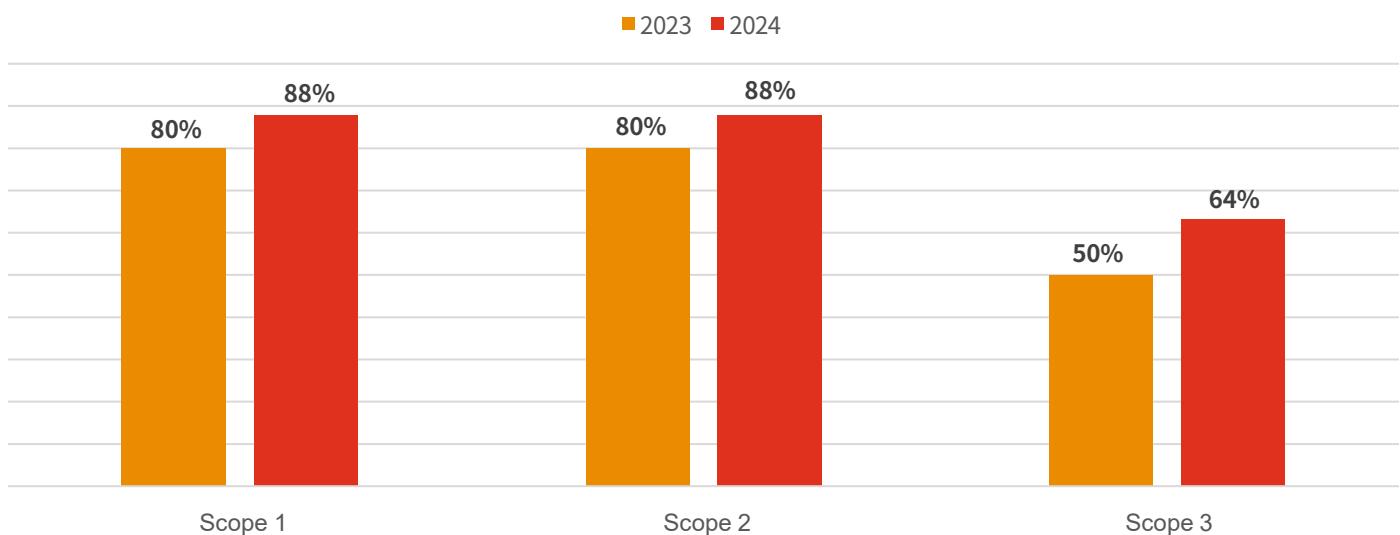
현황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기업의 대부분은 정성적 기후 시나리오만 공시(46%)하고 있음
- 조사 대상 기업의 45%는 정량적·정성적 시나리오를 모두 공시
- 기업들은 복잡한 기후 모델링 결과를 히트맵이나 구체적인 금액 등으로 단순화하여 제시
 - 히트맵: 어떤 지역이 홍수, 가뭄, 폭염 등의 물리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 재정적 영향을 수치로 표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공장이 침수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제시하거나, 탄소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등 제시





그림 13: Scope 1, Scope 2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해당 주제의 중요성

-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은 기업의 직접적인 운영과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배출량까지 포함
- 예를 들어,
 - 기업 A: 원자재를 외부에서 구매(Scope 3에 포함)
 - 기업 B: 원자재를 자체 생산 (Scope 1&2에 포함)
 - Scope 1과 Scope 2 배출량만 보고하는 경우,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간과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총 배출량을 비교할 수 없음
- IFRS S2 기준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따른 Scope 3 배출량 공시 필요
 - Scope 3 배출량은 공급업체, 고객 등 전체 가치 사슬에 걸친 활동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여 조직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배출량을 반영하지 못함
 - Scope 3 배출량 측정 및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GHG 프로토콜 등)과 프레임워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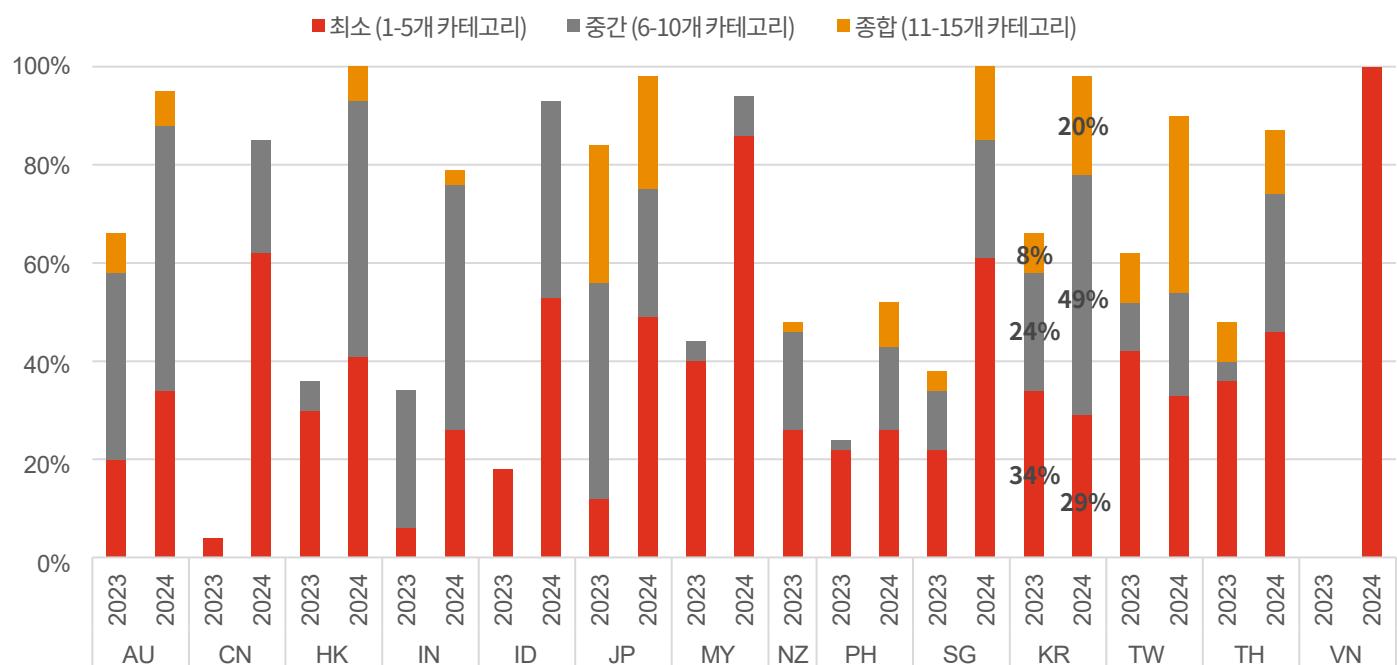
현황

- 23년과 24년 기간 동안 Scope 1, Scope 2 및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소폭 증가
-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는 23년 80%에서 24년 88%로 증가함
- Scope 3 배출량 공시는 23년 기준 50%에서 24년에는 63%로 증가함

* Bhatia, P., Cummis, C., Brown, A., Rich , D., Draucker, L., Lahd, H.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World Resources Institut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1.



그림 14: Scope 3 배출량 공시 수준



참고:

- 1) 뉴질랜드의 2024년 데이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 AU - 호주, CN - 중국, HK - 홍콩, IN - 인도, ID - 인도네시아, JP - 일본, MY - 말레이시아, NZ - 뉴질랜드, PH - 필리핀, SG - 싱가포르, KR - 한국, TW - 대만, TH - 태국, VN - 베트남

해당 주제의 중요성

- GHG 프로토콜에서는 Scope 3 배출량을 15개 카테고리로 구분
-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 부분 차지하나 현재 다수의 기업이 일부 Scope 3 배출량(특히, 출장 등의 비교적 측정이 쉬운 활동)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 Scope 3 배출량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가치사슬 내 기후 관련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동종 업계 간 배출량 비교가 가능해지고, 기업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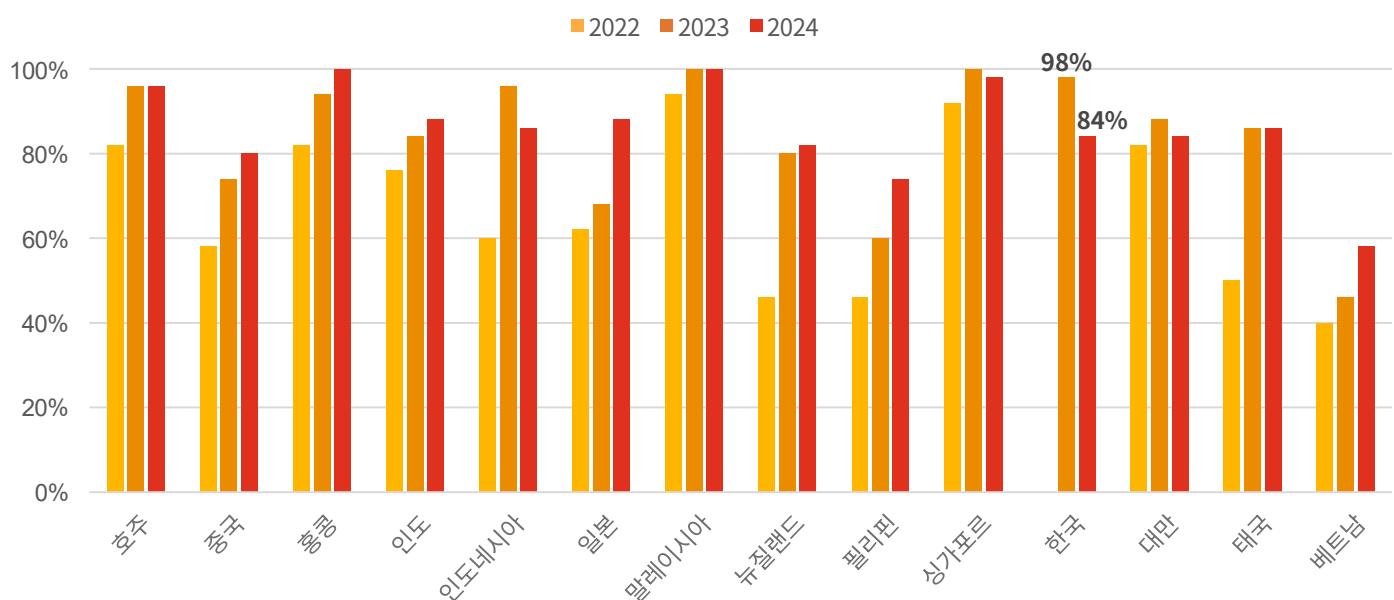
-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의 45%는 최소 수준, 33%는 중간 수준, 13%는 종합 수준의 공시를 보임*
- 조사 대상 기업의 9%는 총 Scope 3 배출량을 공시했지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 상세 카테고리는 공시하지 않음

* 최소 수준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업은 1~5개 범주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중간 수준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업은 6~10개 범주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종합 수준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업은 11~15개 범주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4) 거버넌스 공시

그림 15: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책임 공시



참고: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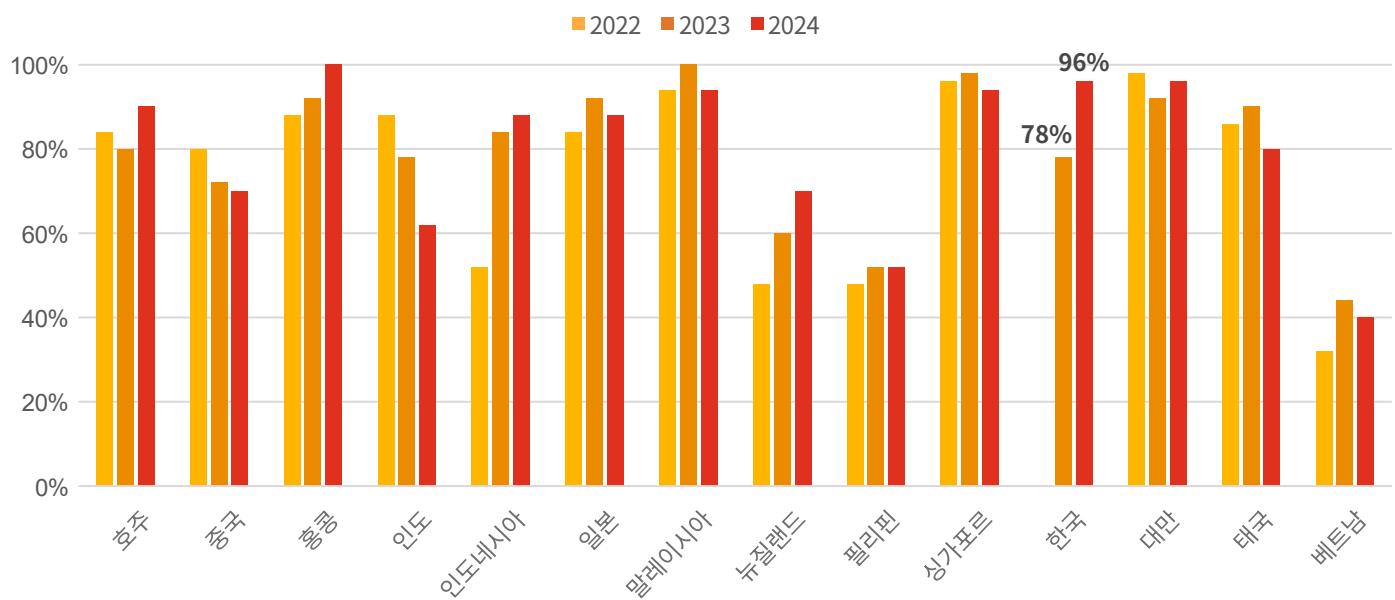
- 조직 내 지속가능성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상위 리더십이 감독하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부서 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가 우선 순위로 관리가 될 수 있음
- 국가별 기업 지배 구조 관련 규정에 이사회가 환경 및 기후 관련 위험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요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고 있음

현황

- 이사회의 책임 관련 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24년에는 조사 대상 기업의 86%가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책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23년 84%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
 - 13개 지역(한국 제외)에서 조사 대상기업의 67%만이 해당 정보를 공개했던 22년과 비교 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24년 지속가능성 관련 이사회의 책임 공시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4개 지역: 홍콩(100%), 말레이시아(100%), 싱가포르(98%), 호주(96%)



그림 16: 지속가능성거버넌스 구조 공시



참고: .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구조 공시가 중요한 5가지 이유
 -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지원
 - 규제 준수
 - 리스크 관리
- 기업이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제공해 투자 유치 가능성 높아짐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전략적 계획의 구성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영진과 고위 임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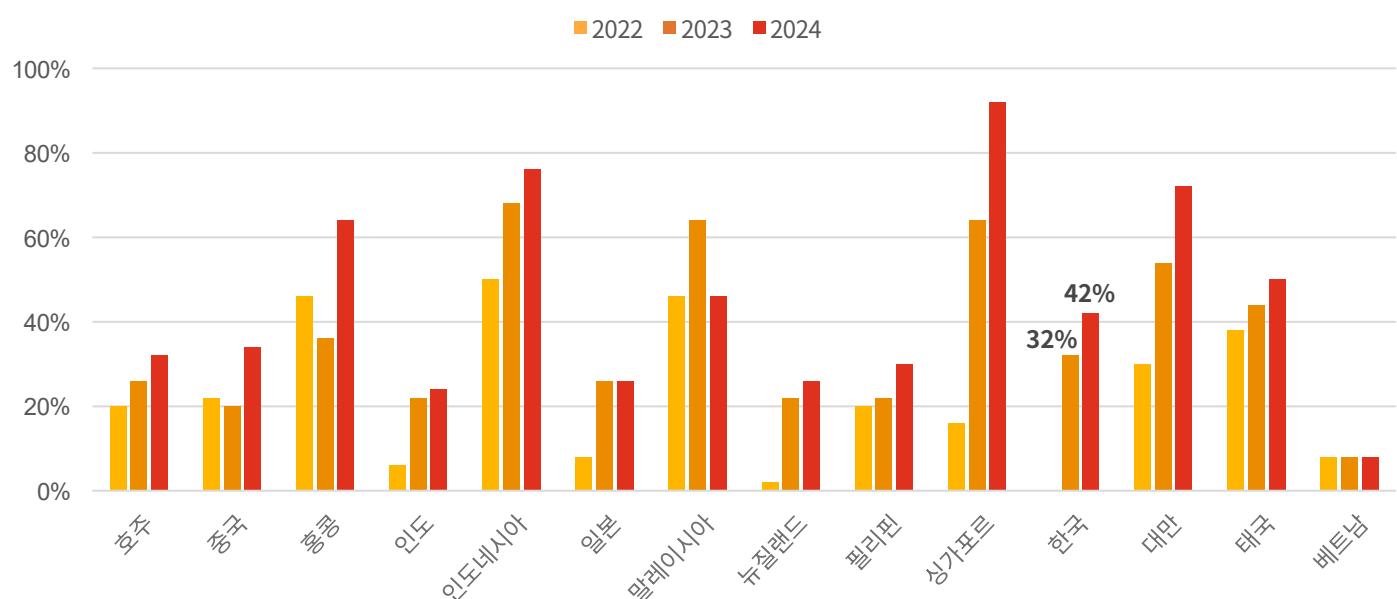
현황

- 조사 대상 기업의 80%가 거버넌스 구조 공시
 - 23년 79%, 22년 13개국(한국 제외) 기업의 75%에 비해 소폭 증가
- 24년 거버넌스 구조를 공시한 상위 6개 지역: 홍콩(100%), 한국(96%), 대만(96%), 말레이시아(94%), 싱가포르(94%), 호주(90%)
- 필리핀과 베트남 기업은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구조 공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이사회 및 경영진 대상 지속가능성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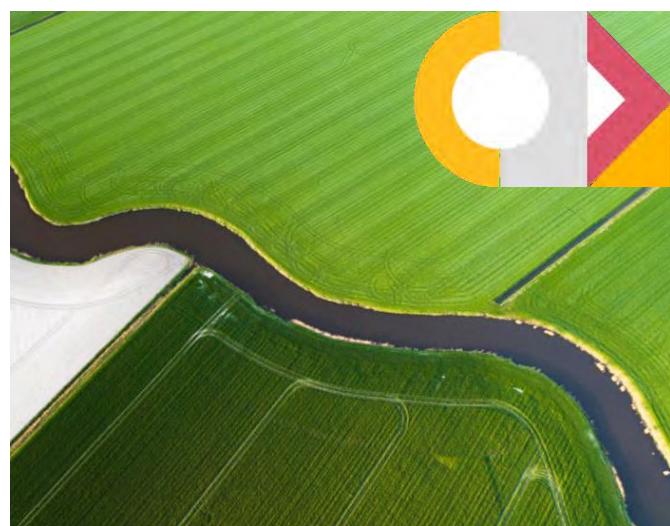
참고: .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 교육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리더십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

현황

- 지속가능성 교육을 받은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증가하고 있음(23년 36% → 24년 44%)
- 23년에서 24년 기간 동안 교육 이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홍콩과 싱가포르
 - 홍콩: 23년 36% → 24년 64%
 - 싱가포르: 23년 64% → 24년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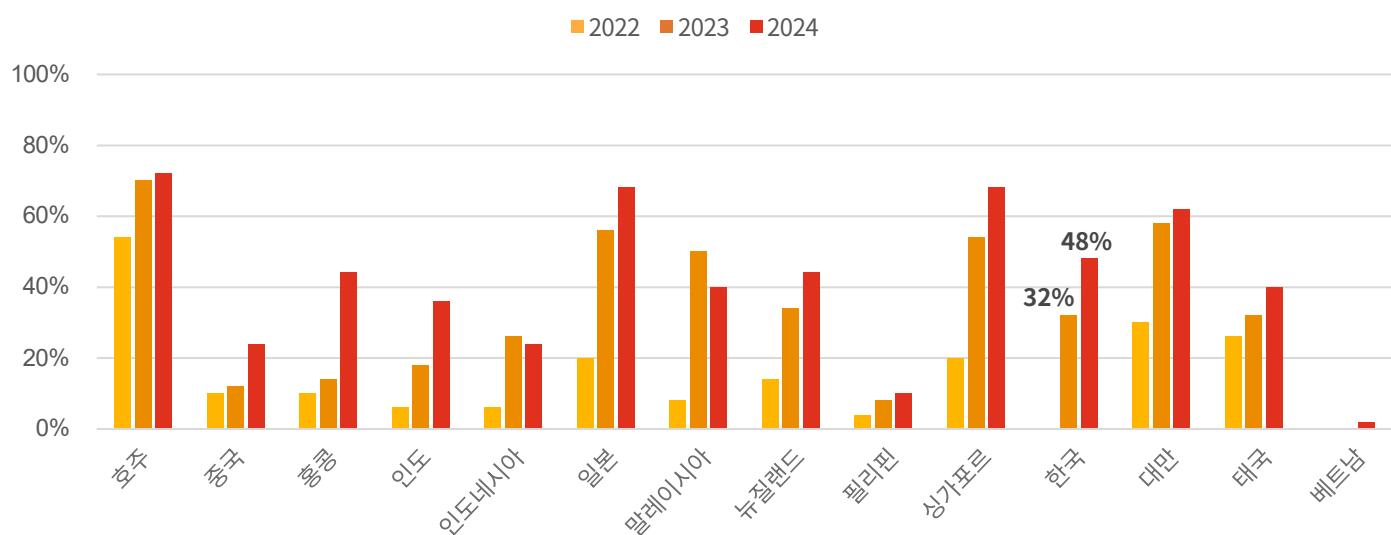




지속가능성 성과와 경영진 인센티브 체계

- 경영진 인센티브에 지속가능성 성과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성과-경영진 인센티브 체계'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성과 및 핵심 성과 지표(KPI)는 측정 가능해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 및 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 IFRS S2는 기업이 경영진 인센티브에 기후 관련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 관련 목표 및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가 당기 총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공시

그림 18: 지속가능성 성과 및 목표와 경영진 인센티브 연계 여부 공시



참고: 한국의 2022년 데이터와 베트남의 2022년, 2023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의 중요성

- 경영진 인센티브가 지속가능성 성과 및 목표와 연결되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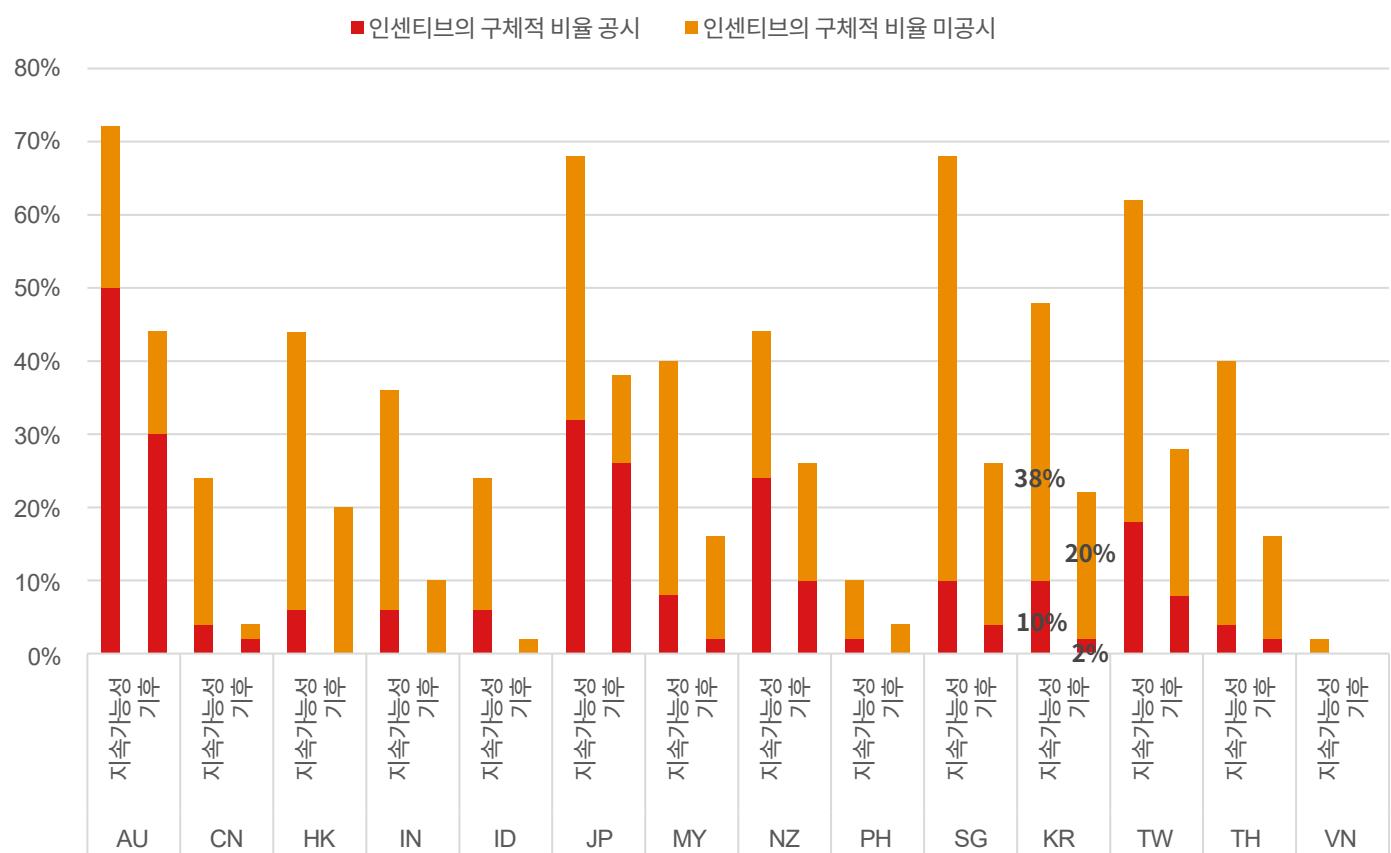
현황

- 지난 3년 동안 경영진 인센티브에 지속가능성 성과 및 목표를 반영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
- 22년 기준 13개 지역(한국 제외) 기업의 16%가 경영진 보수 연계 여부 현황을 공시했으며, 23년에는 33%, 24년에는 42%로 증가함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국에서는 공시율이 증가
 - 특히 홍콩의 공시율이 2023년 기준 14%에서 24년 4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Cook, M., Savage, K., & Barge, F. '임원 보수를 지속 가능성 목표에 연결하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February 7, 2023.



그림 19: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성과와 경영진 인센티브 연계 여부 공시



참고: AU - 호주, CN - 중국, HK - 홍콩, IN - 인도, ID - 인도네시아, JP - 일본, MY - 말레이시아, NZ - 뉴질랜드, PH - 필리핀, SG - 싱가포르, KR - 한국, TW - 대만, TH - 태국, VN - 베트남

해당 주제의 중요성

- 기업은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성과가 경영진 인센티브와 연계되었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인센티브가 총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개 필요
 -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임원을 비롯한 전체 직원이 지속가능성 실천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국가별 규제기관이 IFRS S2 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인센티브 비율 공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전체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정비하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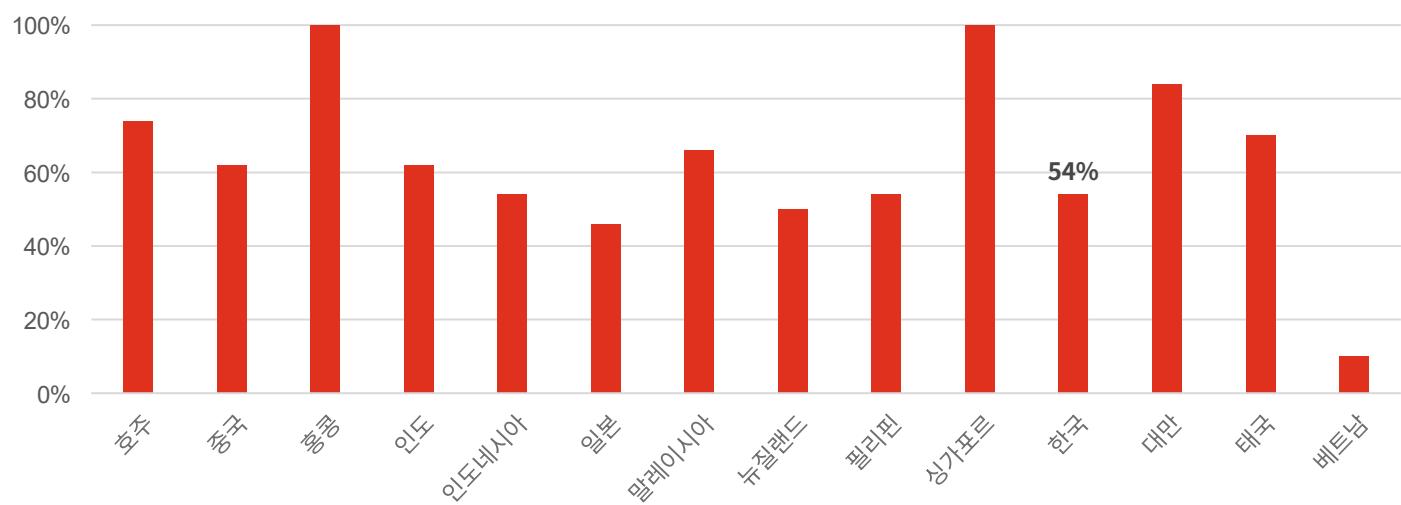
- 지속가능성 또는 기후 관련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업은 여전히 적음
 - 지속가능성 성과 또는 목표 연계 인센티브 비율을 공시한 기업은 13%
 - 기후 관련 성과 또는 목표 연계 인센티브 비율을 공시한 기업은 6%로 나타남
- 호주는 조사 대상 지역 중 1위 달성
 - 지속가능성 성과 또는 목표 연계 인센티브 비율을 공시한 기업은 50%
 - 기후 관련 성과 또는 목표 연계 인센티브 비율을 공시한 기업은 30%



이사회 다양성

- 이사회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기업 경영과 전략 수립에 있어 보다 넓은 시각과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

그림 20: 이사회 다양성 정책 공시



해당 주제의 중요성

- 현재 아·태 지역 대부분에 국가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정책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공식화하는 경우 조직 전체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다양성이 우선 순위라는 메시지 전달 가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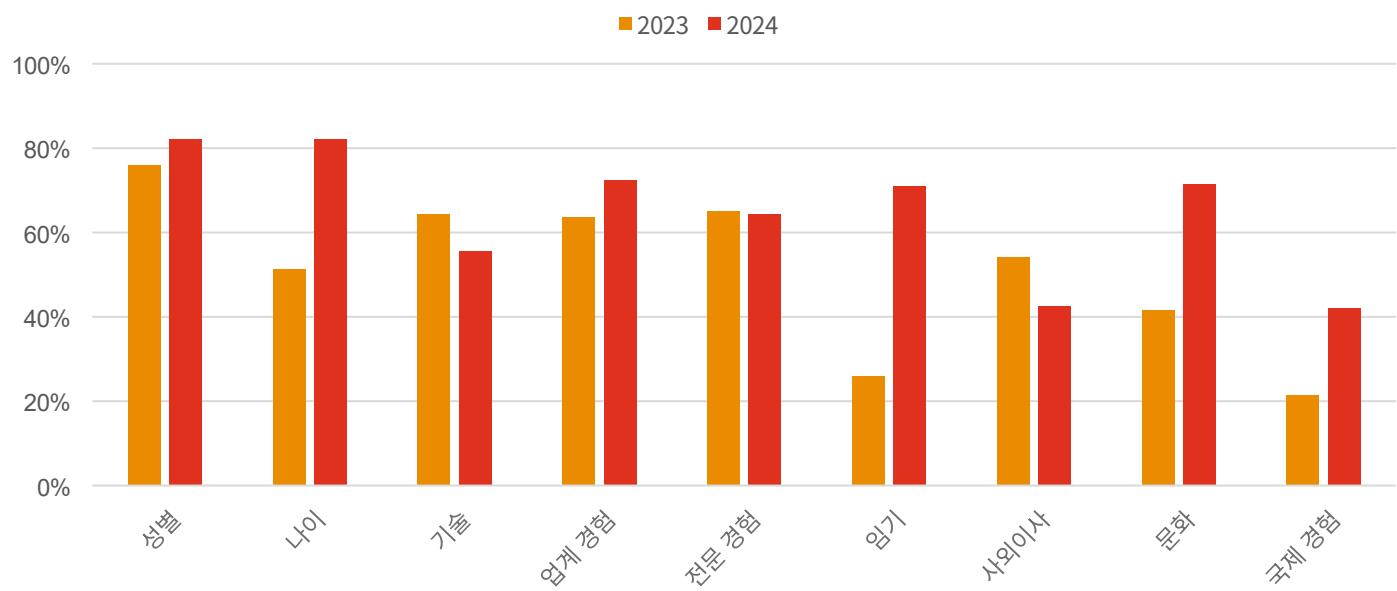
- 아·태 지역 63%의 기업이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홍콩과 싱가포르 기업은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현지 규정에 따라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공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규정 710A에 따르면, 22년 1월 1일부터 상장사는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연례 보고서에 다양성 목표, 계획, 일정 및 진행 상황 등을 포함한 정책 및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함*
 - 홍콩거래소 상장 규정 13.92에 따르면, 지명위원회(또는 이사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다양성 정책 또는 정책 요약본을 공시해야 함.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는 단일 성별 이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에게 늦어도 24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최소한 한 명의 다른 성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함*

* Singapore Exchange. 710A | Rulebook, January 1, 2022.

* Hong Kong Exchange. (n.d.). 13.92 | Rulebook. Retrieved 23 July 2024.



그림 21: 이사회 다양성 요소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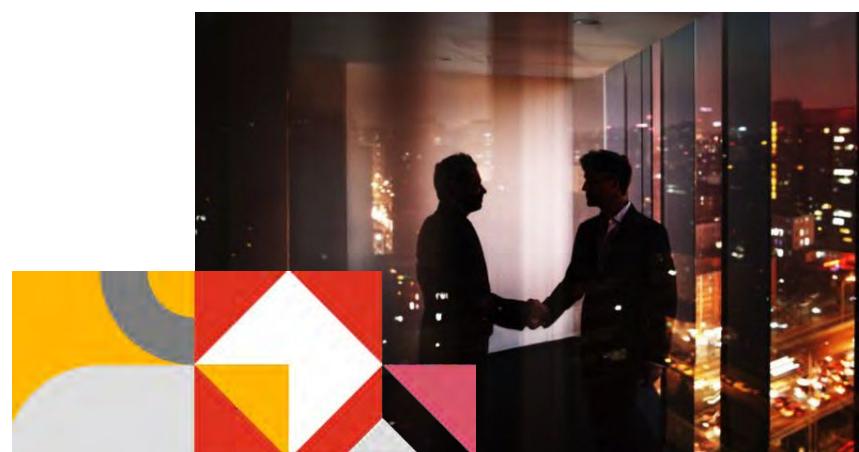


해당 주제의 중요성

- 싱가포르 이사회 다양성 보고서(2024)에 따르면, 여성 이사의 리더십 임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량 중심의 선임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
 - 형식적인 다양성 확보(숫자 맞추기식 여성 임명)이 아니라, 기업이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성별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음을 의미
- 다양한 이사회 구성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 조직의 평판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현황

- 아-태 지역 90%의 기업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이사회 다양성 요소를 공시
- 지난해 대비 이사회 구성 요소 공시가 전반적으로 증가(특히, 임기, 연령, 문화적 배경, 국제 경험과 같은 요소의 공시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임기: 23년 26% → 24년 71%
 - 연령: 23년 51% → 24년 82%
 - 문화적 배경: 23년 42% → 24년 72%
 - 국제 경험: 23년 21% → 24년 42%





(5)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해당 주제의 중요성

- 기후 변화와 자연 간의 상호 연관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자연 및 생물다양성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해당 공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
 - 23년 9월 TNFD(자연 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라인 확정, 24년 1월 GRI 101(생물다양성) 기준 발표, ESRS 기준 내 자연 관련 공시 요구 사항 포함, ISSB의 자연 자본 관련 연구 시작 발표 등

현황

- 아·태 지역 기업의 62%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자연 및 생물다양성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자연 및 생물다양성 정보 공시율이 가장 높은 3개국: 일본(94%), 인도네시아(92%), 한국(86%)



그림 22: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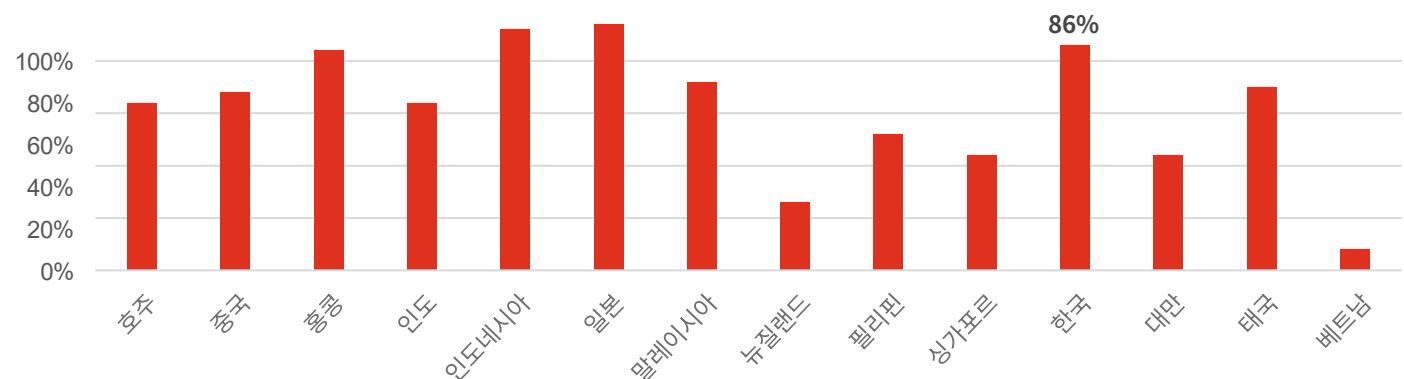




그림 23: TNFD 프레임워크 권고안 활용 현황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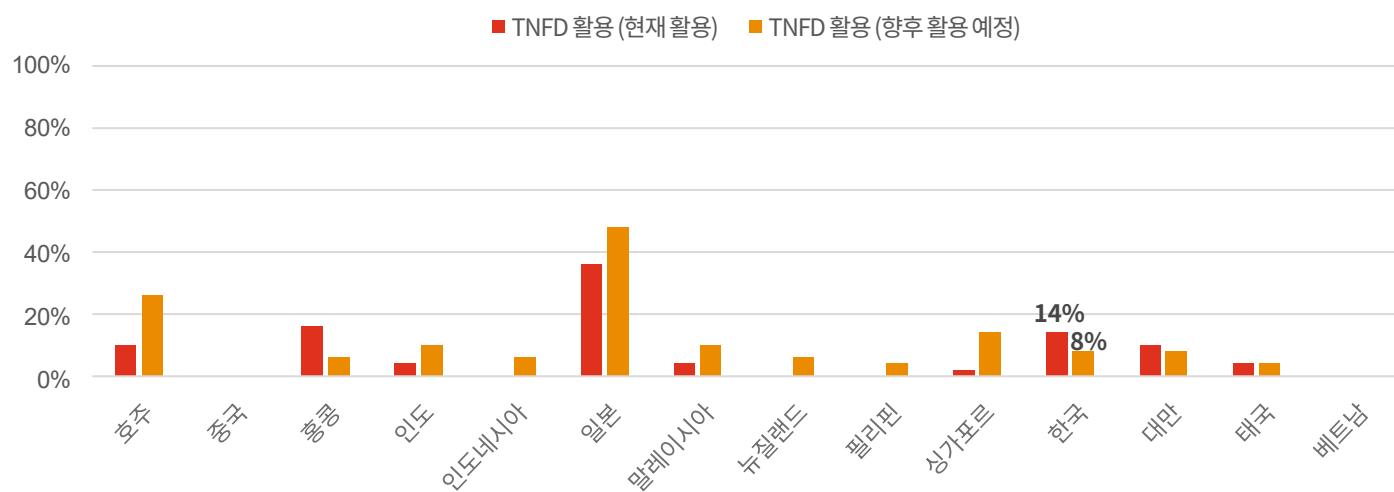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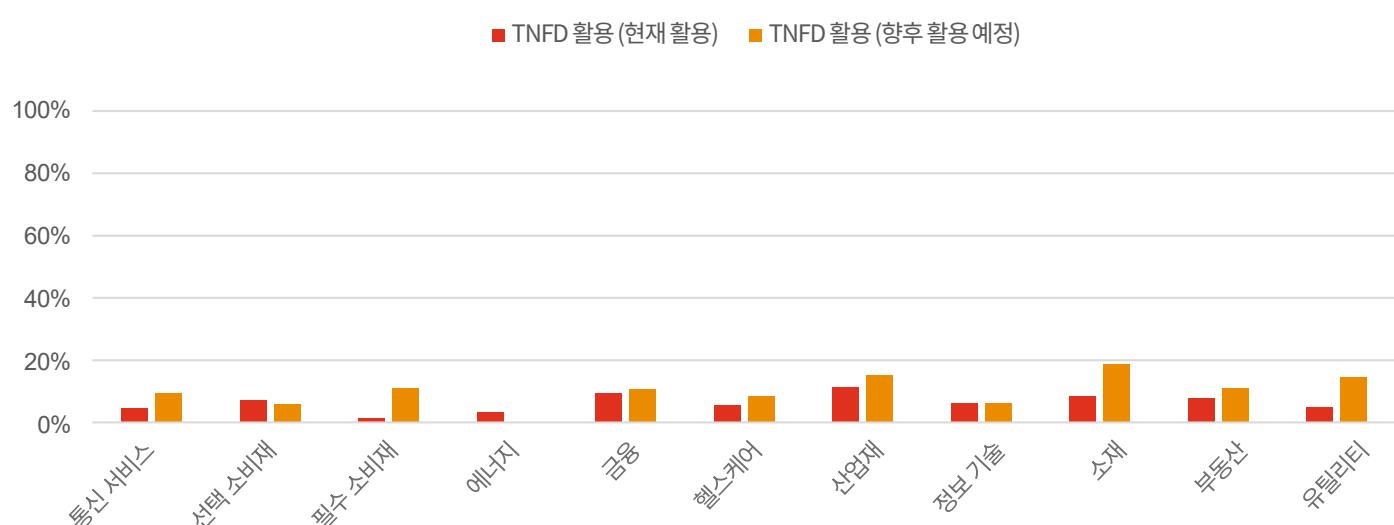


그림 24: TNFD 프레임워크 권고안 활용 현황 (산업별)



참고: '산업별 현재 및 미래 TNFD 프레임워크 활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각 산업에 속한 회사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각 산업별로 TNFD 프레임워크 활용 정도를 비교할 때 해당 산업에 속한 회사의 총 개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현황

- TNFD 권고안을 활용하는 기업 비율 낮음
 - 현재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고 시 TNFD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활용한다고 밝힌 기업은 7%
 - 향후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11%
- TNFD 권고안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6%)
- 홍콩(16%), 한국(14%), 호주(10%) 순으로 집계
- 산업별로는 산업재(19%), 산업재(11%), 금융(9%), 소재(8%), 부동산(8%) 순으로 현재 TNFD 권고안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보고 범위 및 인증

해당 주제의 중요성

- 기업은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가 어떤 범위(조직, 사업장, 자산, 활동 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는 보고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예를 들어, 1) 보고 대상이 전체 그룹사인지, 특정 자회사만 포함되는지, 2) 모든 사업장(국내외 공장, 오피스 등)이 포함되었는지, 일부만 포함되었는지, 3) 소유한 자산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임대 자산도 포함되었는지 등에 대한 공시 필요

현황

- 아·태 지역에서 보고 범위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은 23년 84%에서 24년 83%로 소폭 감소함

그림 25: 보고 범위 공시



참고: AU - 호주, CN - 중국, HK - 홍콩, IN - 인도, ID - 인도네시아, JP - 일본, MY - 말레이시아, NZ - 뉴질랜드, PH - 필리핀, SG - 싱가포르, KR - 한국, TW - 대만, TH - 태국, VN - 베트남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예: 벌금, 제재 등) 완화에 기여
- 지속가능성 인증 수준
 - 제한적 확신: 종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인증
 - 합리적 확신: 재무감사에 준한 수준의 인증으로, 제한적 인증보다 강화된 적극적인 인증 의견 표명
- 아·태 지역에서 인증은 자발적으로 이뤄짐
 - 현재 아·태 지역에서는 외부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음

현황

- 내부 인증 수행한 기업 비율: 33%
 - 내부 감사(Internal Audit)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정보가 정확(Accurate)하고, 관련성(Relevant)이 있으며, 완전(Complete)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부 인증을 실시함
- 외부 인증을 받는 기업 증가 추세: 23년 49% → 24년 60%
- 외부 인증 비율 1위 국가: 한국
 - 한국이 98%로 가장 높았고, 대만(96%), 일본(84%)이 뒤를 이음
- 외부 인증을 받은 기업의 78%는 제한적 인증을 받았으며, 6%는 합리적 인증을 받음
- 외부 인증을 받은 기업의 14%는 보고서 각 항목별로 다른 수준의 인증을 적용
- 조사 대상 기업의 2%는 인증 수준을 명시하지 않음
- 가장 많이 활용된 인증 기준
 - ASAE/ISAE/SSAE* 3000(60%), AA* 1000(33%), ISO* 14064(26%) 순이었음
- 기후 관련 정보 인증에 활용되는 ASAE/ISAE/SSAE 3410도 일부 사용

* ASAE: Australian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 ISAE: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 SSAE: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 AA: AccountAbility Standards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림 26: 내부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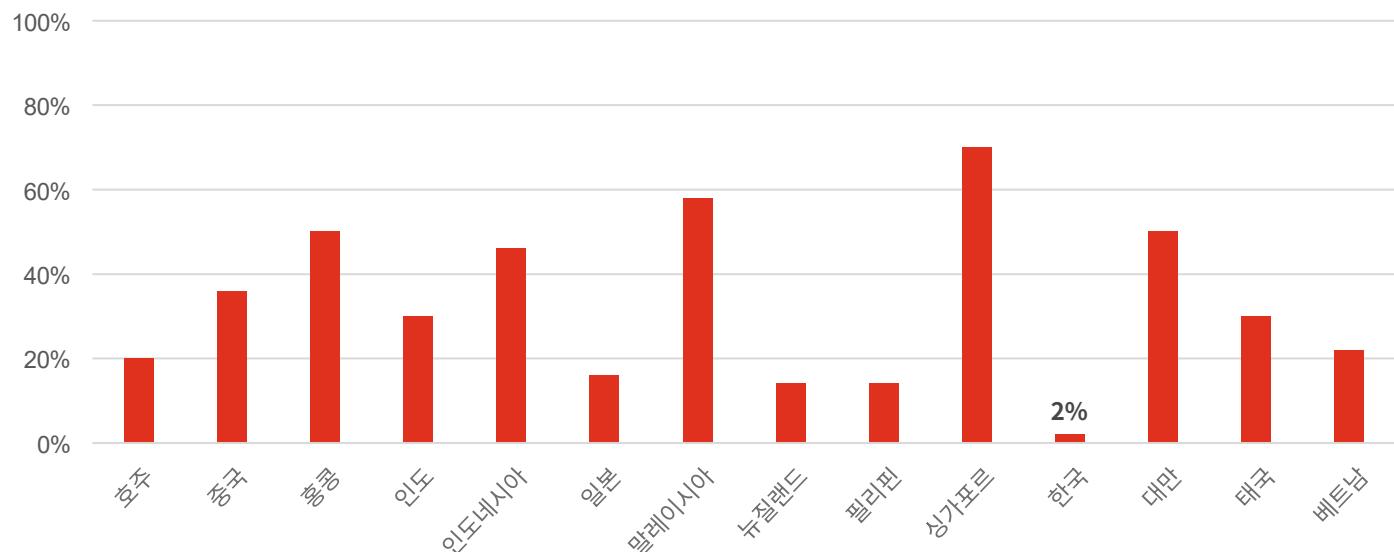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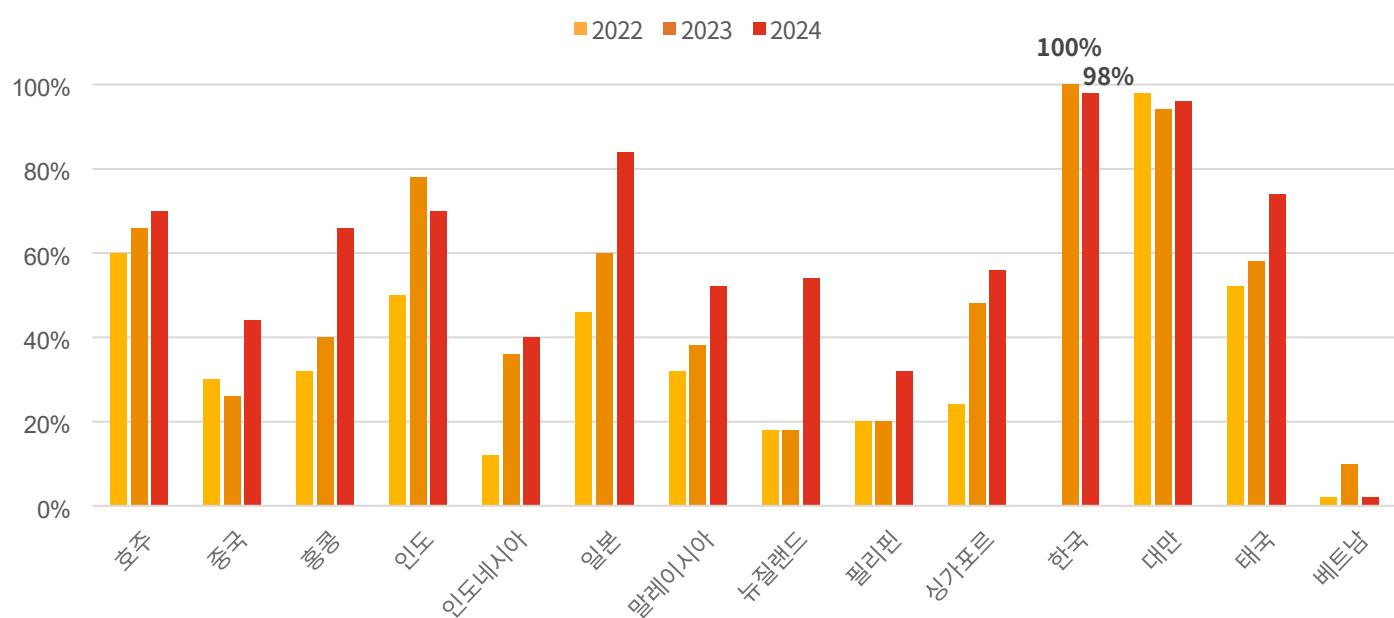


그림 27: 외부 인증 현황



참고: 한국의 2022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2: 인증 기준 활용 현황

구분	ASAE/ISAE/SSAE* 3000	ASAE/ISAE/SSAE 3410	AA*1000	ISO*14064
호주	91%	57%	0%	0%
중국	59%	0%	36%	9%
홍콩	82%	24%	12%	18%
인도	89%	34%	14%	3%
인도네시아	35%	10%	65%	10%
일본	76%	45%	5%	55%
말레이시아	77%	8%	8%	4%
뉴질랜드	44%	59%	0%	33%
필리핀	31%	0%	19%	0%
싱가포르	89%	39%	4%	11%
한국	27%	10%	86%	65%
대만	42%	2%	73%	56%
태국	43%	24%	59%	11%
베트남	10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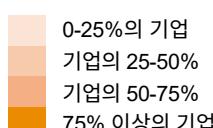
*ASAE: Australian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SSAE: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AA: AccountAbility Standard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참고: 활용 현황 기준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외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



A Appendix



- 14개국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대 상장 기업
- GRI, TCFD 및 ISSB 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성 보고서 대상
- 2024년 5월까지 발간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연례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

(1) 연구 방법론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아·태 지역 14개 국가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상장된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는 11개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6%), 선택 소비재 (10%), 필수 소비재 (10%), 에너지 (4%), 금융 (18%), 헬스케어 (5%), 산업재 (15%), 정보 기술 (9%) 소재 (7%), 부동산 (9%), 유틸리티 (6%)

이러한 회사는 각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호주증권 거래소(ASX), 봄베이증권거래소(BSE), 부르사 말레이시아(BM), 호치민증권거래소(HOSE), 홍콩증권거래소(HKEX),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 한국거래소(KRX), 뉴질랜드증권거래소(NZX), 필리핀 증권거래소(PSE),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선전증권거래소 (SZSE), 싱가포르거래소(SGX), 태국증권거래소(SET), 대만증권거래소(TWSE), 도쿄증권거래소(TSE)

연구의 한계

각 지역의 상위 50개 기업은 각 연구 시작 시점의 가장 최신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지속가능성 지수 시리즈에 포함된 기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위 50개 상장 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각 관할 지역의 전반적인 보고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기업 구성에 10%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보고서가 영어로 공시되는 기업만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시행된 기후 공시 규정과 뉴질랜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 때문에 2024년 뉴질랜드의 결과는 그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계연도가 2024년 3월 이후에 종료되는 기업은 2024년 데이터에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2024년 데이터는 2023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정보는 2024년 5월 기준최신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행 연도에 따라 전년 대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데이터는 2021년 중반까지 발행된 보고서 기준
- 2023년 데이터는 2023년 1월까지 발행된 보고서 기준
- 2024년 데이터는 2024년 5월까지 발행된 보고서 기준

기업이 공개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분석이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후 관련 기회 분석도 부재합니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나리오 분석이 기업의 가치 사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특정 수치를 제시할 때, 그 수치가 어떤 비교 대상 없이 단독으로 제시되었다면, 그 수치는 2024년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입니다.

* 산업 분류는 글로벌 산업 분류 표준(GICS)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는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종료되는 대부분의 인도 기업에 적용됩니다.



Contacts

Sustainability Platform

스티븐 강 Partner

Sustainability Platform Leader

Steven.c.kang@pwc.com

02 709 4788

Sustainability Reporting & Assurance

권미업 Partner

Assurance

miyop.kwon@pwc.com

02 709 7938

김도연 Partner

Assurance

kim.doyeon@pwc.com

02 709 4079

심재경 Partner

Assurance

jea-kyoung.shim@pwc.com

02 709 7083

정우진 Partner

Assurance

woojin.jung@pwc.com

02-3781-1741

김한내 Partner

Assurance

han-nae.kim@pwc.com

02-709-8797

이혜민 Partner

Tax

hye-min.lee@pwc.com

02-3781-1732

Sustainability Advisory

이진규 Partner

Assurance

jin-kyu.lee@pwc.com

02 3781 9105

박경상 Partner

Assurance

kyoungsang.park@pwc.com

02 3781 0029

이보화 Partner

Assurance

bo-hwa.lee@pwc.com

02 3781 0124

소주현 Partner

Tax

so.juhyun@pwc.com

02 3781 0124

곽윤구 Partner

Deals

yun-goo.kwak@pwc.com

02 3781 2501

이정규 Partner

Public

jake.lee@pwc.com

02-3781-0129

유옥동 Partner

Public

ok-dong.yu@pwc.com

02-3781-0128

Energy Transition

임지산 Partner

Assurance

ji-san.ym@pwc.com

02-3781-9236

김홍현 Partner

Tax

hong-hyeon.kim@pwc.com

02 3781 0124

한정탁 Partner

Deals

jungtak.han@pwc.com

02 3781 0124

서용태 Partner

Deals

yong-tae.seo@pwc.com

02 3781 0124

김병일 Partner

Public

byoung-il.kim@pwc.com

02 3781 0124

Platform Team

윤이나 Manager

ena.yun@pwc.com

02-709-8530

박나영 Senior Associate

nayoung.park@pwc.com

02-709-6411

김한나 Associate

hanna.h.kim@pwc.com

02-709-4067

양하정 Assistant Associate

hajung.yang@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3W-RP-032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